

# 2024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2024. 12.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4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 CONTENTS



### I. 고졸 채용

1. '대기만성'의 진짜 주인공 6
2. 스무살, 당당히 취업의 등용문을 열다 11
3. 나를 채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16
4. 희망을 담고, 꿈의 출발선에 서다 20
5. 늦어도 괜찮아 24
6. 대단한 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27



### II. 블라인드 채용

1. 수능 4등급의 평범했던 학생, 공공기관 입사까지 34
2. 편견의 허들을 뛰어넘는 “블라인드 채용” 43
3. 블라인드 채용 7년, 무엇이 달라졌는가? 46
4. 블라인드 채용, 두려우면 도전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52
5.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꿈, 한국환경공단으로의 여정 56
6. 40대 엄마, NCS로 날개를 달다! 60



## Ⅲ. 장애인 채용

1. 39전 40기	68
2. 신입사원이 미래의 후배에게 전하는 작은 격려	73
3. 믿는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기도하세요! 내 손은 떠났습니다	77
4. 위기를 기회로 만든 도전	81
5.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취업관문	83
6. 내가 꿈꾸던 '평범한 삶'	86



## Ⅳ. 지역인재 채용

1. 비수도권 출신으로 비수도권에서 살아남기	94
2. 흑백취준생: 공공기관 취업 전쟁	99
3. 2, 106, 14	103
4. 꿈을 향한 비행일지	107
5. 대학 현장실습에서 시작된 나의 공공기관 목표 달성기	111
6. 지방대학교 캠퍼스에서 전 세계 무대로 뛰어들다	114



## Ⅴ. 청년인턴 채용

1.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금의환향을 위한 안내서	120
2. 공기업 인턴, 삶의 바로미터가 되다	125
3. 공기업 취준생, 공사 대표 정부제도 홍보대사가 되다	129
4. 경험하지 않은 것은 생각할 수 없다	133
5. 길든 짧은 대박야 안다	137
6. 청년인턴 제도의 진정한 의미	142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l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side,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side.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 I

## 고졸 채용

- 1 '대기만성'의 진짜 주인공
- 2 스무살, 당당히 취업의 등용문을 열다
- 3 나를 채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 4 희망을 던지고, 꿈의 출발선에 서다
- 5 늦어도 괜찮아
- 6 대단한 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 ‘대기만성’의 진짜 주인공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석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도 하반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고졸채용 전형으로 입사하여 현재 비축농산물 품질 관리 및 비축기지 냉동기계설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석 ○ 주임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중소기업 계약직이었던 제가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된 수기를 공유하며 공공기관 고졸채용 수험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 중학생 때 결정된 공공기관 입사의 꿈

고등학교 입시 고민이 많았던 중학교 3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관내 마이스티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선배 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설명회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설명회를 들으며 공공기관에 고졸채용 전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졸업 후 공공기관에 입사하여 모교에서 취업 수기를 발표하는 선배들을 보며 공공기관에 입사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 🔍 꿈을 향한 노력, 그러나 다가온 좌절

이후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방과 후 NCS 특강 수업, 전공 관련 실습,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시작인 9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에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원하는 채용 직무가 기계직이었기에 2학년이던 시절 복수전공으로 냉동기계를 선택하였고, 공조냉동 안전관리, 냉동공학, 공기조화 이론에 대하여 심도 있게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용접 실습반에서 아세틸렌 용접을 틈틈이 연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 모의고사에서도 높은 성적을 유지하며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전형에 합격해도 필기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취업에 먼저 성공해 하나둘씩 현장 실습 및 인턴 과정을 나가는 친구들을 보며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초조해 하였습니다. 결국 졸업하기 전까지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고, 졸업 직전인 12월 말, 산학협력부 선생님의 권유로 타지에 있는 중소기업 반도체 세정액 생산공장 계약직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 🔍 인생의 멘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지혜

졸업 직후인 1월, 반도체 세정액 생산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공공기관 취업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산량의 증가 때문에 야근하는 날이 많아져 힘들 때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조언을 구하였는데, 아버지께서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해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불타오르는 계기가 되었고, 원래 목표였던 공공기관 취업에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 단 한 가지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제가 매진해야 할 한 가지 목표인 공공기관 입사에 여러 번 발목이 잡혔던 필기전형 합격을 위해서 그동안 응시했던 공공기관의 NCS 출제 유형과 그에 따른 점수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듈형에 비해 PSAT형 시험에서 점수가 낮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부분인 PSAT형을 보완하기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주경야독을 실천하였습니다.

또, 졸업하고 공부를 재개하며 저의 단점이었던 PSAT형에 강해지기 위해 들인 습관이란 가지 있다면, 뉴스 기사를 읽는 것입니다. NCS의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은 언어이해력과 논리학적 사고력, 자료 해석 능력을 측정하는 과목입니다. 언어이해력을 통한 빠르고 정확한 자료 해석 능력과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출근길 자투리 시간에 오늘의 뉴스 기사를 정독하며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국내 정세를 파악하며 지식과 견문을 넓혔습니다.

## 또 한 번의 실패와 함께 찾아온 기회

노력이 통한 것인지, 첫 번째로 응시한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면접전형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공공기관 면접인만큼,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지식과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공장에서 얻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면접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탈락이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 단번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현장에서 배운 직무능력을 다듬으며 다시 올 기회를 도모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었고, 2023년 하반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학교 선배들의 취업 수기를 통해 알고 있던 기관이었고, 채용 직무도 제가 원하던 냉동·기계 직무였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 두 단계의 관문, 서류 및 필기전형

고등학교에서 배운 3년의 경험과 공장에서 수행한 1년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냈고,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습니다. 시중에 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기업 NCS 봉투 모의고사를 구매하여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풀어보며 필기시험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필기전형에서 커트라인 대비 안정권인 성적을 받고 두 번째 필기 합격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 🔍 최종 고비, 면접전형

마지막 전형이었던 면접은 상황 면접 및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이었습니다. 상황 면접에서 주어진 상황은 보관 농산물의 출고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반도체 세정액 생산공장에서 일하며 배웠던 세정제품 출고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관계서 하신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 🔍 끝없는 자기 개선의 결과, 최종 합격

“석 ○ 님은 2023년도 하반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경영진 면접전형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최종 합격 발표 날 합격 문구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꿈에 그리던 회사에 드디어 입사하였다는 사실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고, 그동안 꿈을 좇아 열심히 달려온 저의 노력이 살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를 믿고 항상 응원하셨던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 뿌듯하였습니다. 합격 이후 부모님과 함께 양복점에 가서 임용식 때 입을 정장을 고르던 날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황홀감이 느껴졌습니다.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해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제 인생에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궁극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명언입니다. 비록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실패와 좌절에 굴복하지 않고 단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며, 공공기관 취업 준비에 매진하였기에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공공기관 고졸채용 입사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수험생 새싹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겪은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빈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어떤 이들은, 한 번의 참담한 실패를 겪고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의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실패의 횟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발전하는 ‘자가 보완의 시간’입니다. 두 경우의 사람들 중 후자의 경우, 노력의 결실이 맺힐 날이 분명히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에 매진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들만이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 02

## 스무살, 당당히 취업의 등용문을 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양○○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인재경영팀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25개의 공공기관에 도전하여, 세 번의 필기시험 합격과 168대 1의 경쟁률을 이겨내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평범할 수 있는 제가 이룬 쾌거는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를 바탕으로 한 꾸준한 자기 발전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제가 걸어온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통하여 꿈을 당당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 특성화고등학교, 진로의 전환점이 되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당시, 대부분의 친구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길을 걷고자 했지만, 친척분의 추천으로 ○○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특성화고의 길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하자는 생각으로 입학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높은 취업률과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매력적인 제도를 알게 되었고, 기존의 입시 경쟁보다 먼저 취업을 하고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방향이 저에게 더 맞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안정성과 사회적 기여를 중요시하는 저에게 고졸의 자격으로도 신의 직장이라 불리우는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여상에 입학하게 되었고,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취업 준비의 밑작업, 자격과 경험을 탄탄히 쌓다

고등학교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입학했던 덕분에, 각 학년에 필요한 자격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저학년 때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앞서 서류 합격을 목표로 회계, OA,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취득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전산 회계 1급을 포함한 13개의 회계·OA·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는 서류 심사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단지 자격증 취득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학급회장과 학생회 활동을 맡아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경험은 리더십과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업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어 전교 9등이라는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내외 공모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내 꿈 발표 대회에서 대상, 나의 주장 대회에서 동상을, 포트폴리오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고, 교외의 UCC 제작 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얻은 성취감은 저에게 도전의식을 길러주었고, 스스로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취업 특강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 면접 연습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이에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경험을 미리 정리하고, 성격의 장단점 등 기본적인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둘 수 있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 동안에는 친구 4명과 스터디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스터디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서로 피드백하며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고, 인성면접, 토론면접, PT면접까지 다양한 유형의 면접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NCS 문제집 풀이에 집중하여 PSAT 유형을 반복 학습하고, 모듈 유형의 이론

을 철저히 암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필기와 면접전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앞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저를 갈고 닦았습니다.

### 🔍 서류 전형,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뽐내다

서류 작성에서는 공기업 공고가 뜰 때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특히,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인사말, 사업 내용, 인재상을 정리하여 제 경험과 연결해 서류를 작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합격 여부가 좌우될 수 있기에, 생년월일, 자격증 합격일 등 기본 정보 입력에 완벽을 기했습니다. 또한 항상 제출 전에는 주변인의 피드백을 받아 내용이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쓰였는지 점검했습니다.

### 🔍 필기 전형, 7번의 실패와 3번의 성공을 맞보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경험 쌓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NCS 필기시험 준비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관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필기시험 준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준비가 부족했기에 수많은 공기업의 시험에 도전하며 7번의 실패를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3번의 소중한 합격을 얻어냈습니다.

저는 필기시험 준비 초반에 다양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고, 시간이 촉박하기에 풀 수 있는 문제를 판별하는 연습을 통해 실력을 쌓아 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며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것은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에 시험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선지의 마지막 번호부터 풀면서 답을 찾는 방식을 훈련했습니다. 이는 출제자가 풀이시간을 늘리기 위해 정답을 선지의 후반부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사인펜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유형의 문제를 마지막에 풀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전략을 통해 합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면접 전형, 용기와 적극성으로 임하다

처음 면접에 합격하고 대졸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면접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고졸 전형과 일반 전형 사이에 차이가 있기에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서로의 예상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조언을 주고받으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각자의 자기소개서를 공유하고 예상 질문을 작성하여 서로의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각자 기업 홈페이지, 블로그, 뉴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기업의 비전과 이슈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면접을 진행하면서, 경험 면접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운반 방식과 같은 실제 기업과 관련된 토론 면접도 연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졸과 고졸의 차이를 의식하기보다는, 제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저와 스터디 멤버 중 절반 이상이 최종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입사 후 성장과 정책 제언, 긴 글을 마치다

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입사한 후 이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택이었는지, 선생님과 선배님들께서 공공기관 입사에 꼭 도전해 보라고 말씀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단의 채용 전형에 따른 차별이 없는 부서 배치와 업무 분장은 저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귀중한 복지였습니다. 인사팀에서 수행한 인사발령, 연차 유급 휴가 촉진, 근태점검, 교대근무 및 대체근무 관리 등의 업무는 제가 공단의 일원으로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 승진, 진학 지원 등 사내규정으로 확립된 제도들과 차별없는 조직문화는 제가 앞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 큰 버팀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국내 대학위탁교육 제도’를 활용해, 업무와 연계된 전공을 선택하여 선취업 후진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공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공단이 저를 믿고 지원해준 만큼,

입사과정에서처럼 끊임없이 자기 계발에 매진하여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졸 채용자들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졸 채용자를 위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꼭 진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린 나이에 취업을 선택한 고졸 입사자들은 학업에 대한 열망이 많은 편이기에, 자격 취득 지원, 실무교육, 이러닝 등을 통해 이들이 업무와 학습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둘째, 2023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참석한 경험을 통해 정보 습득의 창구가 더 확대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졸자에 비해 고졸 채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선배들의 수도 부족하여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람회와 같은 정보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면 좋겠습니다.

고졸 채용이라는 기회를 잡아서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 입사의 꿈을 이루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나를 채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한국자산관리공사 | 정○○



안녕하십니까, 전자과로 졸업해 반도체 회사, 에너지 공기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4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하게 된 정○○ 주임입니다.

2020년 3개의 공공기관 최종합격을 통해 쌓은 경험으로 전자과 졸업생이지만 2024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2020년에 필기와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설명 후, 2024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종합격과 연결지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 연습은 지독하게, 실전은 쉽게

미국의 복싱선수 ‘메이웨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연습은 지옥같지만, 시합은 쉽고 즐겁다.”

메이웨더는 선수생활 시절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시합이 매번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연습이 정말 지옥같기 때문이죠. 오직 시합 때만이 자신을 뽐내고 유일하게 해방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저는 실제 필기시험보다 더 어려운 수준으로 필기 준비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기능사 수준의 전공지식은 부족하다고 느껴 대졸 수준인 '전기기사'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혼자 배웠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자기학' 과목에서 문제를 풀려면 미적분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했지만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유튜브 강의를 통해 독학하였습니다. 이렇듯 기초개념부터 시작해서 심화과정까지의 공부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했고 하루에 9시간씩 1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필기공부에 할애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지만 시험 때 해방되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노력의 결과 전기기사 필기 모의고사는 항상 80점을 넘었고 기회가 되어 2020년 공공기관 대졸 전기직군 필기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대졸 채용이었지만 필기점수는 합격보다 단 2점 낮았습니다. 점수를 보며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고졸 채용이 뜨기를 기다렸고 필기시험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도 합격이 직감되는 수준이었고, 지옥같은 공부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떨어지면 누가 붙어'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공부하신다면 필기합격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면접은 의도파악이 80%

면접을 준비하면서 합격하기 어려운 유형은 '모든 질문을 외워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질문을 조금만 변형해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말해보세요]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면접자가 준비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2.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말해보세요]라는 질문에는 10명 중 9명은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창의적이라는 단어가 지극히 주관적이라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창의적인 경험은 가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창의적'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1, 2번 질문 모두 면접관의 의도는 면접자의 '문제해결능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해 창의적 경험이 포함되면 더욱 좋겠지만,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두 질문에 대해 같은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같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는 면접준비를 할 때 면접질문을 듣고 '이 질문을 통해 나의 어떤 모습 혹은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단어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핵심을 파악할 줄 안다면 어떤 면접질문이든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이렇게 필기와 면접을 준비하니 2020년 세 곳의 공공기관에 최종합격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 4년 뒤 한국자산관리공사 도전

2020년에 쌓아온 경험들로 2024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졸 필기시험은 모듈형NCS만 보기 때문에 NCS에 대한 대비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모듈형NCS는 개념 위주의 문제유형이 많아 암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듈형 기본서 책 500페이지 분량을 통째로 외운다면 합격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다 외웠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필기합격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험 유형을 파악한 후 시간을 투자해서 외운 것밖에 없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지독하게 말이죠.

면접에서는 과연 면접관들이 나의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직'에 대한 질문은 무조건 나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이직에 관한 질문이 나왔고 저의 앞뒤 면접자들도 같은 이직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저 혼자만 합격했습니다. 다른 면접자들은 본인들의 이직사유를 설명하는 반면,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이직하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회사를 선택한 거지?'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면접관들이 원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합격임을 직감했고 결국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 🔍 나를 채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저에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해서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은 대부분 회계 관련 자격증, 대회경력 등을 갖추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고졸치고 나이가 많은 24살, 회계 자격증 하나 없는 전자과 졸업생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뭐가 어쨌든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여준다면 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 지독한 필기준비], [2. 면접질문 의도파악] 이 두 가지를 완벽에 가깝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잘 지키신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를 안 뽑을 수가 없는데?’, ‘내가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돼!’

여러분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전공과 상이해도, 경쟁률이 높을지라도 본인이 원하는 공공기관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준생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 희망을 담고, 꿈의 출발선에 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송○○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점점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 알아보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택이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러한 주택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지원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전을 보며 언젠가 저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원이 되어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을 다니며 점차 제한된 업무 범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차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저의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입사원 공고”를 보게 되었고 못해도 꿈을 위해 도전해 보자는 생각으로 입사 지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입사 지원과정에서 ‘내가 과연 이곳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에 사회 형평성 제도인 고졸 채용을 통해 고졸자에게도 공정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제게 합격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고, 용기를 품은 채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필기시험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직무능력인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NCS 시험을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나면 이미 피로감이 몰려왔고, 공부할 시간과 에너지를 내기 쉽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이번 도전으로 내 가능성을 증명해 보고 싶다는 열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을 내며 준비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새벽까지 공부를 이어 갔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논리적 사고와 의사 전달 능력 향상을 위해 글 요약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수리 능력에서는 매일 숫자와 데이터를 해석하며 계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문제해결 능력에서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익혀 갔습니다. 준비하며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저의 목표를 다지며 더욱 열정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열정 덕분에 필기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면접은 AI 면접, 인성 면접, PT 면접 총 3개의 면접이 있어 면접 준비도 쉽지 않았습니니다.

AI 면접은 기존의 면접관이 아닌,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면접 방식이라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했습니다. 저의 표정, 음성 톤, 답변의 신뢰성을 분석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이 중요했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답하기 위해, 답변을 구조화하는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표정과 시선도 AI 분석 대상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며 미소를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AI 면접 시작 날, 화면 속 카메라 앞에 앉아 이전에 수없이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미소와 안정적인 목소리 톤으로 답변을 이어 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많은 연습을 반복한 덕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답변을 이어 나갔습니다. 질문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려고 애썼고, 처음에는 떨렸던 목소리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면접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 준비한 답변을 한층 더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성 면접은 지원자의 가치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인성을 평가하는 자리였기에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전과 미션, 조직

의 가치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수행하는 주요 사업들, 특히 공공주택 공급과 사회 기반시설 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연결해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또한 긴장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족을 상대로 모의 면접을 실시하며 연습했습니다. 답변에서 일관된 가치관을 보여주기 위해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내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면접 당일, 긴장감이 밀려왔지만, 이렇게 반복한 결과 면접장에서 저의 경험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의 목표를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연습한 모의 면접의 효과를 실감하며,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며 준비한 답변을 차근차근 풀어 나갔습니다. 팀워크나 갈등 상황에 대해 답변할 때는, 과거의 경험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성 면접의 마지막 질문이 끝났을 때는 진심을 담아 답변을 이어온 것에 대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PT(직무) 면접 준비가 남았습니다. PT 면접은 앞선 AI, 인성 면접처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이 아닌, 주어진 주제에 대해 20분 이내에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5분간 발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논리적 사고력, 자료 해석 능력, 발표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가장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PT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리적인 전개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모의 문제를 풀며 스스로 자료를 구성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정책, 주택시장 트렌드, 사회적 기업의 역할 등을 주제로 선정해 자료를 분석하고 발표 연습을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주제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습니다. 또한, PT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목차를 잡아 개요를 설명한 후, 문제의 핵심과 해결 방안을 일관되게 전달하려고 연습했습니다.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발표 연습을 반복하면서 발표 시간을 체크하고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발표 당일 자세와 목소리 톤에도 신경을 써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상을 남기려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 덕분에

제한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면접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며 결과 발표날을 기다렸습니다. 결과 발표날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확인을 하였습니다. 화면에 비친 “합격”이라는 단어를 보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선 모든 노력과 고생이 보람으로 돌아와 꿈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사에서 주거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주거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스로 물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답변을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행동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지원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담 후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의 저의 목표는 더 크고 분명해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원으로서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꿀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최종 합격 이후 임용이 된 지 많은 날이 지났지만, 아직도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룬 이 성과가 단순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제 배경이나 환경이 결코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의 첫걸음은 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고, 앞으로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환경에서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모든 이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노력이 꿈의 출발선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늦어도 괜찮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이ㅇㅇ



### 🔍 목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에 더 관심이 많아 특성화고를 진학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특성화고에 입학하였을 때 학교 내에서 매년 하는 정기행사가 있었는데 스승의 날에 졸업한 선배들이 학교에 방문해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행사였다. 취업 후기도 듣고 Q&A도 받으면서 단순 취업만 하고 싶던 내가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다는 꿈이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물론 공공기관만의 복지, 안전성, 워라벨 등의 메리트가 좋아 보여 꿈이 생겼었다.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이 생기고, 그 기관이 하는 업무를 보면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는 점이 크게 다가왔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를 한다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 🔍 과정

중학교 3학년, 원하던 상업고로부터 입학 통지를 받고 고등학교 입학 전 겨울방학 때부터 컴퓨터와 회계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준비하였다. 미리 연습한 회계는 걱정할 것과 달리 나와 더 잘 맞았다.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만 하는 것과 정답이 정해져 있다

는 게 마음이 편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선 구체적인 취업 목표가 생겼고(공공기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내외 활동은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경제동아리, 봉사동아리, 학생회, 신문기자단 활동, 금융공모전, 취업박람회, 창업대회 등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건 모두 참여하였다. 또 학교 내에 공기업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공기업 취업반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공기업 취업반에 가입하여 매일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내신을 관리하고 NCS를 준비하였다. 내신도, 경험활동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전부 명확하고 자신 있었기에 나는 내가 19살에 꼭 취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 Q 위기

19살 상반기, 첫 취업의 문이 열렸다. 사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엔 학교에서 추천장을 받아야만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공기업은 소수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곤 전부 지원을 할 수 있어 기회의 폭이 넓었다. 인생에서 처음 입사지원 서류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엉망진창이었던 자기소개서가 점점 다듬어졌고, 밤을 새워가며 서류전형을 제출하였다. 부푼 기대를 안은 채 서류 합격이 되었고 처음 필기를 치러간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몇 권이고 풀어보았던 NCS이지만 막상 시험날에 치러간 문제는 너무나 생소했고, 모의고사 때보다 시간이 더 촉박했다. 긴장을 한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뒤에도 몇 번이고 떨어지는 필기 전형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아무리 서류전형에 합격해도 필기에서 막히니 면접장엔 들어가 보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취업하여 반 년 이상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비교가 되고 많이 위축되었다.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미 충분히 어린 나이였지만 19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남들보다 늦을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 Q 극복

취업을 하지 못한 채 20살을 맞이하였고, 처음 상반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내 손으로 돈을 벌고 싶기도 하였지만,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한 고등학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근황 토크를 하게 되었는데, 졸업 후에도 꾸준히 공공기관 취업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던 얘기를 듣게 되었다. 또 서류전형도, 필기전형도 합격하고 면접도 몇 번 다녀왔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준비했던 공공기관의 꿈을 다시 도전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전환점이 되었다. 내려놓았던 자기소개서를 다시 작성하고, NCS를 공부하면서 될 때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다는 오기도 생겼다. 그렇게 몇몇 기관의 면접을 보게 될 기회가 생기면서 지금 재직 중인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작년 12월 하반기 막바지에 최종합격을 할 수 있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 벌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입사한 지도 10개월 차 신입이 되었다. 취업준비 기간도 길었고 그만큼 어렵게 들어온 만큼 업무가 힘들 때마다 그때의 간절함을 생각하며 초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 마무리

나의 길었던 취업 준비 이야기를 마치면서 혹시 나와 같이 공공기관 취업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끝을 알 수 없는 탈락 문구가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한 번씩 슬럼프가 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취업에 성공했을 때 드는 성취감은 이루다 말할 수 없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 탈락들이 고작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닌 최종합격으로 가기 위한 디딤 길이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 분명 많은 탈락을 겪을수록 더 성장하고 단단해진다고 감히 자신할 수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 취업난 속 남들과 비교하려 하지도, 불안해 하지도 말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모든 고졸 취업준비생 파이팅!

## 06

## 대단한 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 제갈○○

 꿈이 없던 사람의 첫 번째 선택

KTX 3,430대가 날마다 목적지를 향해 선로 위를 달린다. KTX, 지하철, 무궁화호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열차가 자기만의 열차번호를 가지고 특정한 선로 위를 경쾌하게  
 지나간다. 이처럼 인생도 운행표가 있다면, 나는 정해진 길을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된다  
 면 어떨까?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겠지만 나는 그런 큰 고민 없는 삶을 줄곧 원해 왔다.  
 학창 시절 들은 진로 프로그램은 적성 또는 흥미와 관련된 것을 직업으로 삼으라고 했다.  
 둘 다 모르겠는 나에게 꿈을 꾸란 말은, 저 멀리 있는 별을 따라는 것처럼 와닿지 않는  
 말이었다.

중학교 3년 내내 다닌 수학 학원의 선생님은 큰 꿈이 없던 나에게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권유했다. 이후 입학 설명회를 듣고, 선취업 후 진학 제도 등 특성화고의  
 장점을 알고 원서 접수를 결심한다. 나의 공공기관 입사 수기는 다른 우수작과는 색이  
 다를지도 모른다. 만년 엘리트가 쓰는 글은 아니기 때문이다.

## 오랜 시간 고민하지 말고 저질러라

〈공부한다 → 시험 점수를 잘 받는다 → 기분이 좋다〉

다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난 입학 이후 학업에 열중한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딱히 꿈이 없는 사람이다.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공부한 게 아니다. 공부를 미루고 스마트폰을 하는 즐거움도 알지만, 공부하고 결과로 보답받는 성취감과 더불어 따라오는 자기효능감은 해본 사람만이 얻는 것이다.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느낀 감정들은 앞으로의 일을 잘 해낼 구실이 된다. 주어진 일을 이왕이면 잘해보자는 생각으로 하나씩 헤쳐나가다 보면 성장하는 내가 느껴진다. 자격증 시험도 똑같다.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들이 주로 취득한 자격증이 무엇이 있는지는 인터넷 검색 30초 만에 알 수 있다. 필수 자격증 시험을 아무거나 하나 신청해보자. 합격확률을 따지는 건 시험을 친 후 할 일이고, 우선 시험을 접수하면 합격점을 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자신을 볼 수 있다. 만약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공부한 것은 남기 때문에 재도전하면 된다. 학업 공부든 자격증 시험이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일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저질러보자. 이것 말고도 각종 대회, 동아리, 학생회장 등 지원 자격만 된다면 우선 해보자. 인생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찰나의 나는 판단할 수 없다.

쌍인 발자국들은 분명 미래의 나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준다.

##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과정

2021년 3월, 나는 처음 들어본 공공기관 채용 공고를 보고 무척 당황한다. 계획 없이 공부만 해서 자소서도 면접도 무엇 하나 준비되지 않았는데 입사 지원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왕좌왕 처음 본 NCS 시험에서 합격 커트보다 10점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NCS는 나만의 풀이 방법을 만들면 점수가 절대 오를 것 같지 않다가도 한순간에 금방 늘게 된다. NCS 시험은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나머지 영역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합격점을 넘을 수 있다. 난 수리영역의 같은 문제를 해부하다시피

여러 방법으로 풀어본 후 쉬운 풀이법을 찾곤 했다.

같은 유형의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와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해부했다. 문제 유형별 나만의 풀이법을 만들었다면 이후엔 양치기다.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 한다. 끈기 있게 하면 분명 실력은 는다. 참고로 난 학교에서 처음 NCS 모의고사를 보았을 때 60문제 중 19개를 맞춰서 꼴찌였다.

공공기관 면접은 내부 임원과 외부 면접관이 평가표의 일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평가한다. 즉 첫인상이나 운으로 불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로 집을 짓는다든가 하는 전지전능함을 바라지는 않는다. 실제로 당신에게 초능력이 있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당신을 합격시키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질문은 대부분 직무와 연관되어 있고, 말을 일에 초점을 맞추어 답변을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질문에 맞는 답을 하는 것이다. 공들여 준비한 답변을 꼭 말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을 곡해하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에 맞는 답변만 해도 중간은 한 것이고, 그 답변을 직무와 어울리도록 나만의 강점과 더불어 풀게 된다면 최상이다.

자소서도 당연히 직무에 적합하도록 써야 한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지원 동기 3줄이라도 써보길 바란다. 처음부터 흠잡을 데 없는 자소서는 나오지 않는다. 틈틈이 써보는 노력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자. 한 개의 완벽한 자소서를 만들어 두면 원서 접수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 꿈의 행방은

공공기관 면접을 10번 이상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왜 남들의 기대치만큼 해낼 수 없을까였다. 한심하지만 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와중에도 뭐가 하고 싶은지 정말 모르겠기에 원동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거듭된 실패는 천천히 나의 내면을 갉아 먹었다. 부모님, 선생님, 곁에 있는 친구들의 응원을 받고도 해내지 못하는 내가 너무 싫고 그들의 응원에도 한계가 있을 거라며 의심했다. 날 믿는 사람이 다음엔 잘 될 거라는 말만 계속하게 만드는 상황이 힘들었다. 남을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게 나의

유일한 동기였던 것 같다.

웃긴 건, 아직도 그때처럼 뭐가 하고 싶은지 잘 모른다. 췌바퀴 같은 삶을 살다 보면 문득 또 삶의 이유를 찾고 싶고, 해소되지 않는 공허감과 허무감이 나를 헤집는다.

근데 이젠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싶다. 난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준비하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출근하고, 회사에선 일에 집중해 그날의 임무를 끝마친다. 후련한 마음으로 퇴근하면서 잿빛 노을을 구경하고, 직접 장 봐서 산 재료로 음식을 해 먹고, 좋아하는 향의 바디워시로 샤워하고 잠에 든다. 심심할 땐 도서관에 가서 끌리는 제목과 좋은 질감의 표지를 가진 책을 읽어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떠든다. 즉 원대한 꿈이 없이 이런 하루만을 바라도 되지 않나 싶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거창한 목표와 복잡한 계획 없이도 삶은 살아진다. 그것도 꽤 괜찮게 살아진다. 어차피 죽기 전까지는 나만의 행선지를 계속 그려가야 한다. 계속 달리다 보면 꿈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여전히 대단한 꿈은 없지만, 나는 취업 후 현재의 일상이 감사하고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후배들도 꿈이 없다고 자책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단, 현재의 임무에는 충실하면서!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rounded rectangular bars of varying lengths.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 II

### 블라인드 채용

- 1 수능 4등급의 평범했던 학생, 공공기관 입사까지
- 2 편견의 허들을 뛰어넘는 “블라인드 채용”
- 3 블라인드 채용 7년, 무엇이 달라졌는가?
- 4 블라인드 채용, 두려우면 도전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 5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꿈, 한국환경공단으로의 여정
- 6 40대 엄마, NCS로 날개를 달다!

## 수능 4등급의 평범했던 학생, 공공기관 입사까지

한국마사회 | 이○○



### 🔍 반전은 없었다

초, 중, 고등학생시절의 나는 그냥 게임을 좋아하고 사교성이 좋아 반장을 여러 번 했던 학생, 머리 깎고 교복 입은 평범한 학생 중 한 명이었다.

수능성적 평균 4등급, 수시 2차 논술전형과 면접으로 내 본연의 실력에 맞지 않는 높은 수준의 대학에 기적적으로 입학한 나는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그런 어른들의 말만 믿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었다.

하지만 나의 학력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던 대학 동기들이 전공 교수님들의 어려운 설명을 찰떡같이 이해하던 것과는 다르게, 전공수업을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학사경고 1회, 총점 4.5점 만점에 3.3점으로 반전 없는 대학 생활을 종료했다.

### 🔍 너무나 높았던 취업의 벽

2018년 2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아무런 계획도, 꿈도, 스펙도 없는 채로 다른 동기들이 하듯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2018년 이○○의 SPEC
지방 국립대 졸업학점 3.3점, 영어성적 없음, 자격증 없음, 대외활동 없음.

도서관에 다니면서 전자과 대학 졸업생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써보는 대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에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GSAT'라는 삼성전자 필기 전형 문제집도 시중에서 구매하여 풀어보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

채용전형 결과는 처참했다. 모든 입사지원서의 1차 서류전형 탈락.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2018년 당시 반도체 호황기에 힘입어 역대급 채용을 준비한다는 뉴스가 항상 취업정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었고, 서류는 자기소개서를 백지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모두 합격시킨 뒤 2차 필기전형인 'GSAT' 시험에서 대부분 걸러낸다는 얘기가 항상 돌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나는 큰 절망감과 실망감으로, 그 이후의 대기업 채용전형에 지원하지 못했다.**

### 자그마한 기폭제들

대규모 채용에서의 서류탈락 이후 나의 삶은 한마디로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대학 졸업 후 근로능력을 가진 채로 직업 훈련도 받지 않은 채 집에서 쉬는 사람'이었다.

아무런 의욕도 없었으며, 아무런 꿈도,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 주변 동기들의 삼성전자, LG화학,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합격소식이 들려왔다. 딱 하루 열등감에 휩싸인 채로 분노한 뒤 다음날이 되면 똑같은 니트 생활의 반복이었다.

나는 니트 생활 중에 자그마한 기폭제를 여러 번 경험했다. 어머니의 눈물, 거울을 본 나 자신, 주변 친구들의 합격소식 등등, 이러한 여러 개의 기폭제가 쌓이는 와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중에 어떤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는 공무원에 합격한 뒤 임용대기 상태에서 여행 자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고, 나와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한심한 듯 대했다.

나는 그 여자의 그런 행동이 처음엔 당연하다 느꼈고, 지속되자 분노했고, 변화를 결심했다(여담이지만 그 여자는 지금 내 부인이다).

## 🔍 자기 객관화의 시작, 그리고 Blind 채용

[자기 객관화] 취업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전국에 있는 취업 준비생 중 몇 등인지, 백분위 몇 퍼센트에 속해 있는지를 학교나 학원, 수능처럼 알려주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이 대체 어떤 기업에 다닐 수 있는지 객관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SPEC과 대학교 학점, 대외활동 등을 정리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중소기업이라도 이력서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중소기업도 괜찮았지만 앞으로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좋은 곳에 입사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대학교 학벌, 대학교 학점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필기시험 성적, 면접 성적만으로 합격시켜 주는 기업을 찾아야만 했다.

있었다. 공무원·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제도였다. 공무원은 아무런 자격증도 필요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원이 가능했으며 오로지 1차 필기전형, 2차 면접(합·불)으로 내 자신을 평가해 주었다. 공공기관은 1차 서류전형에서 자격증, 영어성적 등으로 나를 평가한다. 학벌·학점 등, 과거를 보지 않는다. 나는 공공기관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한다. 내가 태생적으로 공부를 못해서, 스펙 만드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중소기업으로 방향을 틀 계획이었다.

## 🔍 시작

학창시절에도 하지 않던 공부를 성인이 되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상담해 줄 선생님도, 선배도 없었다. 그저 독서실에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새벽 1시에 집으로 갔다. 공부방법도, 전자공학 이론도 잘 몰랐다. 자격증 관련 전공서적에 밑줄을 치며 읽었다.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었다. 14번 정도를 회독했다. 책이 너털해졌다. 기분은 좋았다. 2018년 12월, 무선설비기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했다. 시작이었다.

2018년 하반기 이○○의 SPEC
지방 국립대 졸업학점 3.3점, 영어성적 없음, 기사자격증 1개, 대외활동 없음.



## 2019년, 공공기관 입사를 위한 서류전형 스펙 완성

공부는 자동차와 비슷했다. 시속 0km부터 엔진페달을 아무리 강하게 밟아 RPM을 강하게 올려도 가속은 천천히 된다. 나에게 2019년은 그런 해였다. 정지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가는 자동차, 나는 엑셀페달을 계속해서 힘차게 눌렀고, 자동차는 가속을 받아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전기기사 자격증과 통신기사 자격증을 준비했다. 그리고 영어스펙을 만들기 위해 토익 시험과 기타 자격증도 준비했다.

기타 자격증으로 한능검 2급과 컴활 1급을 취득했고, 정보통신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전기기사 자격증은 필기까지 합격했고, 공공기관의 여러 기술직 직렬 중 통신직렬로 입사하겠다고 생각하여 그만두었다.

공부방법은 모두 같았다. 자격증 시험의 경우 전공 원서를 회독하고 또 회독했다. 토익은 자기 객관화를 위해 아무 준비 없이 한번 치러봤다. 660점이 나왔다. 막막했다. 또 그제 반복하고 반복했다. ETS 기출문제집을 사서 지문을 읽고 또 읽었다. 모르는 단어를 찾고 외웠다. 문법문제는 그냥 통째로 다 외웠다. 패턴이 비슷했다. 리스닝은 듣고 받아 쓰기를 했다. 그제 노력했다. 편법은 없었다. 토익시험은 4번을 봤다.

660 → 770 → 850 → 905점이었다.

참 진부한 말이지만,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았다. 자신감은 가득했고, 자신감이 넘치니 의욕이 넘쳐났다. 이 의욕으로 다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이것이 다시 자신감으로 바뀌는 선순환 형태가 계속되었다.

이때 당시를 회고하면, 매일 아침 9시 ~ 새벽 1시 독서실에서 생활하며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며 하루를 보낼 정도로 피폐했던 삶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당시엔 전혀 힘들지 않았다.

2019년 이○○의 SPEC
영어성적 토익 905점, 기사자격증 2개(전기기사는 필기까지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컴퓨터활용능력시험 1급



## 블라인드 채용

내 자신이 바뀌고자 결심하고 2년, 블라인드 채용에 필요한 스펙이 완성되었다. 다른 취업생들은 대학 졸업 전 완성되어 있는 스펙들이다. 나는 느렸다. 느린 만큼 빠르게 달려 나갈 필요가 있었지만, 여유가 있었다. **블라인드 채용의 매력이었다. 지원자의 나이를 알 수 없다.**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었다면, 나같이 몇 년간 경력단절이 발생한 경우, 해명할 기회도 없이 탈락했을 것이다.

나는 내 속도를 지키며 엔진 과부하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 사기업 압박면접 질문으로, '경력 단절기간 동안 뭘했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상처가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처럼 실패한 인생을 되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면접에서 간단한 문장으로 답변할 수 없다. 여러 개인사정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한 취업 준비생들이, 여러 경쟁자들을 이겨내고 면접장에 면접관 앞에까지 섰다. 경력 단절이 아니다. 그 지원자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인한 공백기일 뿐이다.



## 필기전형 = NCS = PSAT = 수능 언어 '비문학'

스펙은 완성되었다. 가장 서류 스펙이 높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발전사 등도 최고 가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차 필기전형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기술직 필기전형은 직무능력검사인 NCS 필기시험과 전공필기시험을 친다.

전공 시험공부는 자격증 시험 위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준비했다. 원서를 계속해서 공부했다. 원서에 나오는 어려운 예문도 풀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17회독의 결과였다. 자격증시험 기출문제도 풀고 문제 해설 인터넷강의를 들으며 전공 실력을 키워나갔다.

NCS는 내가 알고 있던 시험과는 많이 달랐다. 전공과는 달리 순수하게 '너 똑똑해?'라고 물어보는 느낌이 강한 시험이었다. 나 같은 범인(凡人)이 노력만으로 NCS 점수를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느꼈다.

NCS 점수를 높이기 위해 내가 선택한 방법은 다르지 않았다. 끊임없는 반복과 노력, 자신감은 넘쳐흐르고 있었다. 노력하면 될 것이다. 그뿐이었다.

NCS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 [자기객관화]를 위해 2019년 한국전력공사 필기시험을 치렀다. 결과는 필기 탈락, NCS 난이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에 맞추어 준비를 시작했다.

NCS는 PSAT형, 모듈형 이 두가지 유형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모듈형은 약간 암기 위주의 문제들이며, PSAT형이 난이도를 급상승시키는 주된 이유다. 엄청나게 긴 지문에 주어지는 자료와 근거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답을 찾아야 한다.

PSAT형은 5급 고시의 1차 필기시험을 PSAT(공직적격성평가)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PSAT형 NCS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전 회차의 고시 필기시험의 기출문제를 받아서 회독하기 시작했다.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3과목 모두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한다. 문제당 3분 정도로 풀어야 제한시간에 맞추어 모두 풀 수 있다고 한다. 첫 도전에 한 문제 푸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렸다.

위 과정과 함께 수능시험 언어(現 국어) 과목의 '비문학' 문제들이 약간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어, 수능시험 비문학 문제만 모두 뽑아 책 읽듯이 풀기 시작했다.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고시 기출문제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수능 기출문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출력해서 공부했다. 인터넷 강의나 외부강의를 듣는 거보다 가성비가 좋았다.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좋다.



### (2020~21년) 입사지원, 그리고 취업

공공기관 채용의 장점은 전년도 말 혹은 연초에 채용계획을 통해 대략적인 채용규모와 일정을 알려준다. 덕분에 어떤 기업을 언제·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등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여러 공기업에 입사지원을 하고, 필기시험에 임하였다. 자기소개서는 솔직한 나의 경험들을 객관적으로 담아냈다. 대학생활 중 대외활동·인턴경험 등 직무경험중

심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시험·자격증시험을 준비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경험에 대해 작성했고, 아르바이트 경험도 직무와 연관하여 경험했던 내용 위주로 진솔하게 작성하되, 깨달음을 얻어 내 인생관 혹은 가치관에 변화가 생긴 계기 등을 담아내는 것에 주력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였는지, 필기시험은 단 한 군데도 떨어지지 않았다. 당시 어렵기로 소문난 한국수력원자력 NCS 시험은 60문항 중 40개 정도만 풀고 나와도 합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60개 모두 풀어내어 합격하였고(합격자는 필기점수를 알려주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커트라인 + 11점, 한국공항공사도 커트라인 +15점 등 커트라인 점수보다 월등한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다.

나는 그저 노력에 대한 합당한 결과였다고 생각했다. 가장 1순위로 입사하고 싶었던 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통신전자직렬에서는 아쉽게 최종면접에서 고배를 마셨고 한국수력원자력 ICT직과 부산교통공사 통신전자직에 최종합격하였다.

2021년 이○○의 SPEC
영어성적 토익 905점, OPIC IH, 기사자격증 2개(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컴퓨터활용능력시험 1급 , 최종합격기업: 부산교통공사, 한국수력원자력

 (2022년) 한국마사회 입사

한국마사회 입사는 운적인 요소가 작용하였고, 지금까지 노력의 결과가 내 자신에게 배어 있었다는 반증이었다. 당시 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입사하여 회사업무에 열중하며 1년 2개월 정도의 경력이 쌓인 상태로 이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마사회 입사 지원서를 냈을 때 현업도 매우 바쁜 외증이라, 마사회 입사를 위한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한수원 합격 이전까지 공부했던 내용들만 머릿속에 가진 채로 필기시험에 임했다.

필기시험 결과는 NCS 88점, 전공 60점대 수준으로 합격 커트라인보다 약 10점 정도 높은 수준이었고 NCS 점수가 높았던 것이 합격의 이유였다. 전공시험은 전공 공부를

못하고 있었으므로 전공 지식에 대한 암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NCS는 위 설명한 것과 같이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보니 내가 준비했던 능력이 내 자신에 그대로 배어 있었으므로, 월등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간략히 말하면 NCS 실력(혹은 직무능력)은 한번 끌어올려 놓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후 1차 직무면접, 2차 인성면접은 내가 노력하고 힘들었던 인성적인 경험과, 한수원에서 일했던 직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행할 직무와 연관하여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을 풀어낼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을 면접관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최종합격까지 하게 되었다.



### 취업준비생들에게 제언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3년차 재직중인 이○○ 사원입니다. 저는 취업준비기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공기업, 사기업 어디로 입사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공기업에 취업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스펙도 하나도 없었고요.

한국마사회 입사는 30살에 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좋은 채용 정책 덕분에 마사회까지 입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시대를 잘 타고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취업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취업준비생분들 힘들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독서실비가 없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식비가 없어서 학자금 생활비 대출까지 받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취업기간 동안 정말 조바심도 나고 눈물도 나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목처럼 수능 4등급에, ○○대학교를 수시2차 전형으로 거의 턱걸이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에 입학할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전공강의 너무 어렵더라고요. 학사경고도 한 번 받았어요. 정말 '똑똑하다'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부심 느끼고 자랑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는, 와 이 친구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구나,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어디가서 자랑하고 싶은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

다. 취업준비기간엔 1등으로 독서실에 들어갔고 제가 마지막에 독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취업까지 노력해주세요. 노력하면 NCS 실력도 늘고, 전공점수도 늘고 자격증 시험도 전부 합격 가능합니다. 고시처럼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공공기관 시험은 노력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어렵다면 조금 많이 뽑고 경쟁률이 낮은 공공기관에 지원 할 수도 있고, 내년에 또 도전하면 됩니다. 나이를 안 보는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시기만 늦어질 뿐이거든요. 참 힘든 시기에 막연하게 노력만 하라고 하니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는 정말 노력밖에 한 게 없고 노력이 전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독서실에 적어 놓았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인데요.

**‘독서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한다. 참 웃기는 일이었다. 내가 가장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가장 열심히 한다. - 서울대 의예과 수석합격자의 글 중 -’**

이 문구를 써 놓으니, 저는 독서실 어디엔가 있을 의예과한테 지고 싶지가 않아서 더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페이스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주세요. 제 후배 혹은 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뽑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 편견의 허들을 뛰어넘는 “블라인드 채용”

한국국방연구원 | 박○○



연구원 나무들이 빨강계 노랑계 물든 것을 보니 재작년 이맘때쯤 NCS 시험을 보러 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날은 아이를 조금 일찍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바쁘게 돌아서는데, 다급히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담임선생님께서 작지만 밝은 목소리로 “어머님 파이팅!”하고, 방긋 웃으며 응원을 보내주셨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도 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뭔가 눈치를 채신 모양이다. 살짝 긴장했던 마음이 놓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오랜만에 보는 입사 시험이라 그런지 괜스레 긴장도 되고, 또각또각 오랜만에 신은 구두 소리에 가슴 설레기도 했다.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라니….

10년을 넘게 다닌 나의 첫 직장이 역삼역에서 인천 송도로 본사이전을 하게 되었다. 가만히 떠올려보면 입사하자마자 인천 송도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계획 PT 자료를 만들었으니 그때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하지만 사옥을 건설하고 이전 날짜가 코앞에 닿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이 서지 않았고, 편도 2시간 거리로 출퇴근을 할 것인지 이직을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

건축직으로 입사하여 발주처 감독관으로 물류센터를 짓는 일부러 지방 사옥과 복합쇼핑몰까지 굵직한 신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부지매입, 설계, 시공감독, 인테리어, 공간 연출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다. 퇴사 직전 속해 있던 인테리어팀 업무도 재미있었지만 더 늦기 전에 건축 쪽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한 박자 쉬어가며 준비기간을 가지기로 마음 먹고 사표를 던졌다.

정해진 이직자리 없이 다시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간 나는 외로움만 점점 커졌다. 계획했던 자격증 시험공부가 있었지만, 반복되는 불안감에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소문난 자격증 시험공부에 대부분 시간을 쏟았고, 구직사이트를 보며 예전에 썼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조금만 고쳐서 여기저기 지원하기 시작했다.

신입 때는 합격자 발표날마다 나의 모자란 부분을 탓했다. 토익점수가 낮아서, 공모전 수상경력이 없어서, 자격증이 부족해서 등을 탓하며 텅 빈 이력서에 허기를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한 것이 문제였다. 나이가 많고, 돌봐야 할 아이가 있고, 가성비 좋게 데려다 쓰기에는 경력이 많고 이런저런 핑계에서 서류 탈락의 이유를 찾았다.

계속되는 서류 탈락에 지쳐갈 때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유퀴즈 국가기밀 특집’을 보게 되었는데 미국 NASA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박사님이 나오셨다. 국력강화나 무기개발 같은 이야기가 평소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었지만 지루하지 않고 시종일관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신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박사님이 근무하고 계신다는 연구소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정확한 이름이 기억 나지 않아 “국방”과 “연구”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하다 보니 이름이 아주 비슷한 또 다른 연구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국방연구원”, 그 기관에서 마침 건축직 채용공고를 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기막힌 우연이었다.

‘건축직을 뽑긴 하지만 채용인원이 딱 1명에 더군다나 국방정책연구기관이라는데 설마 여자를 뽑겠어?’, ‘건축일은 오래 했지만 시설관리 경험은 없잖아.’라는 생각으로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은 서류심사 때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어마어마하고, 자기소개서 질문도 일반적인 문항이 아니었기에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게 아닐까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언제나처럼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다.

중랑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점점 소멸이 되어가던 자기소개서가 전문가의 첨삭을 거치자 제법 담백해졌다. 타 기관 입사를 준비하며 AI 면접을 볼 일이

있어 도움을 받을 곳을 알아보다 지역구별로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알게 되었다. 면접, 자기소개서 첨삭 등 나처럼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었고, 무엇보다 나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과 서로 응원하며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가까스로 서류심사와 NCS 시험의 벽을 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나를 그동안 망설이게 했던 걱정들은 나의 편견일 뿐이었다. 철저하게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었고, 나에게 자녀가 있는 나이가 많은 서류에 나타낼 필요가 없었다. 자기소개서에도 출신 학교나 학력 등을 드러내는 순간 오히려 심사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면접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과 능력 위주의 질문이 주가 되었고,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위주였다. “건축일을 하다 보면 야근이 많을 텐데, 그런 경우 아이를 돌봐주실 분이 계신가요?”라는 질문 대신 “우리 연구원은 건물이 오래되어 누수 문제가 종종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을까요?”같은 질문 말이다.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지만 벌써 여러 건의 공사를 마무리했고, 또 다음 공사를 위해 여러 가지 보고서류를 작성 중이다.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내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 동료들과 의논해 가며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매우 만족스럽다.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끝났는지 마음속에서 건축사 시험을 준비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 블라인드 채용 7년, 무엇이 달라졌는가?

한국지역난방공사 | 이○○



블라인드 채용, 즉 지원자가 갖고 있는 대학, 성적, 성별 등 채용에 있어 중요하다고 여겼던 정보를 배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만을 기반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 기관 지원자는 대학이나 성별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여 더욱 공정한 절차에 신뢰성을 가지게 되었고 7년이 지난 지금, 공공분야에서는 출신과 상관없이 다양한 대학, 성적, 성별로 구성하게 되었다.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이행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비율은 2019년 48.3%에서 2023년 51.5%로 상승, 비수도권의 비율은 2019년 49.1%에서 66.2%로 상승함을 볼 수 있다(출처: 헤럴드경제 기사).

제도가 안정화된 지 7년 차,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블라인드, 직무 중심 채용을 겪어본 필자가 느끼는 채용시장은 어떨까?



학력, 성적 위주의 스펙에서 직무 중심 채용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직무 중심 채용]

바야흐로 중고 신입의 시대다. 필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 2023년 채용으로 들어왔을 때도 면접이 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면접은 인바스켓, 직무, 토의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바스켓 면접은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업무 해결 능력을 보는 것인데 대부분 기안문과 메일 등 자료를 압축해서 50분 안에 해결하는 면접이었다. 만약 필자가 위 유형을 겪지 않은 지원자라면 매우 노력해야 할 부문이라고 생각했다.

직무 면접은 본인 지원 계열(기계, 전기 등)에서의 능력을 통해 해당 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다. 이 면접도 이직자이거나 직업 경험이 많다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던 자리이다.

마지막으로 토의 면접은 업체나 동료에게 대하는 갈등관리 및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면접인데 필자는 취업준비생이었을 때 내향적이었으나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 융화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세 개의 면접을 통과하면서 느낀 점은 해당 직무에 어울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능숙한지를 판별한다는 느낌이 강했다. 이에 중고 신입이라면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연수원에 들어오고 나서 이직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손을 들라고 했을 때 무려 80%가 손을 들었다.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대부분 최소 체험형 인턴부터 10년 차 이상 베테랑 직장인까지 대부분이 유관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블라인드와 직무 중심 채용으로 선발하니 성별이 편중되지 않고 대학도 다양하였다.

[직무 중심 채용,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필자의 이직이 결정되고 나서 대학 시절 친했던 교수님을 찾아뵈었던 적이 있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에는 경력이 부족한 갓 졸업한 학생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짐을 실감한다고 하셨다.

전환점은 코로나19 사태였다. 그때부터 기업 경제가 휘청였고 기업이 채용 규모를 감소하거나 미루면서 채용 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연구장학생 제도를 시행하여 대학생에 지원하면서 입사까지 탄탄대로를 보장하거나 많은 인원을 뽑으면서 다양한 인원 풀을 선발하였다면 최근에는 빠르게 직무에

적응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인재를 판별하는 추이로 바뀌었다.

요약하면 감소한 기업 이익을 보완하기 위해 적응력이 빠른 직무형 인재를 선호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단순히 대학 지식을 습득한 졸업자보다 실무를 배워본 경력자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학력을 중시하는 사기업에서도 점차 직무 중심 채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대로 취업준비생이 느끼는 채용시장은 어떨까?

필자가 2019년에도 취업 준비할 때는 기사 자격증 1개, 토익 850점, 한국사 능력 1급이면 대부분의 공기업 서류는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3년에 지원하려고 보니 취업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서류 합격 기준은 기사 자격증 2개, 컴퓨터 활용 1급, 한국사 능력 1급, 영어는 900점(혹은 850점), 영어 스피킹(가점) 등이 있어야 여러 공기업 서류 전형에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확인해 보니 이전에는 서류 배수가 없이 적부 판정이었던 기업도 서류 10배수 등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합격 점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최소 1년의 준비기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졸업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계속된 실패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탕핑족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온다. 일각에서는 블라인드 제도가 오히려 무의미한 스펙 경쟁을 부추겼으니 학력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기업은 왜 합격점을 높인 것일까? 기업에서는 어려워진 경영 상황에서 채용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소모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엔 사회적 비용으로의 전도에 불과하다.

필자가 실제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5년간 블라인드 채용시장을 겪어본 바로는 2019년도에는 서류 합격률이 높은 대신 천하제일 NCS 대회였고 2023년도에는 자격증만 따놓으면 서류 배수가 낮으므로 NCS는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유의미한 차이는 '직무 유관 경험'의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 이전지역인재 전형, 정말 사회 형평성이 적용되는가?

직무와 연관 없는 스펙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전형, 아이러니하게도 블라인드가 아닌 항목이 있다. 공사공단은 블라인드 전형을 시행함과 동시에 성별, 장애인, 보훈, 지역 등 사회 형평을 위해 가점 또는 비율로 관리하고 있다.

필자도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으나 블라인드 채용은 또 다른 관점에서 대학 입학과 유사하다고 바라보았다. 결과론적인 평등 관점에서 보면 결국 점수로 선발된다. 그러나 동일한 과정에 오기까지의 노력의 양은 다를 수 있다. 교육비 투자가 가능한 가정일수록, 학습 환경이 좋을수록 더욱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소득 높을수록 자녀대학 좌우 - 아이뉴스 2024. 기사 발췌).

유사하게 블라인드 채용에서 합격하기까지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지원자라면 더욱 빠르게 목표하는 직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에 과정의 보완점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형평에 동의하는 바이다.

또, 정부 경영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공사공단에서도 사회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사회 형평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인재는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 수혜를 봐야 하는 전형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전지역인재는 지방에 본사를 둔 지방 인재가 해당 기업에 지원할 때 가점 또는 비율로써 채용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채용 유형이다. 필자가 ○○공사의 시험을 볼 때 ○○공사에서 특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전지역인재를 추가 채용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는 더 낮은 점수로도 합격할 수 있음에 부당함을 느끼고 글을 쓴 적 있다. 당시에 필자는 취업사이트에 왜 이전지역인재가 혜택을 봐야하는지 모르겠다. 기피시설인 발전소 내에 위치하여 불편을 겪는 것이 아닌 공사가 있음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미지가 제고되어 더욱 이익이므로 약자도 아니다. 이 외에도 오히려 타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으로 와야 하므로 인구 유입으로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기재했더니 악성 댓글이 달렸다.

‘○○지역은 더 많이 가져가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 하나’ 등의 비논리적인 항의성 댓글이었다.

기업으로서는 해당 지역의 인재를 뽑아 해당 지역의 고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싶어 하므로 긍정적으로 보는 곳도있다. 정말 그럴까?

기사를 발췌해 보니 이전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한 공기업의 과반수가 특정 대학에 쏠려 '사조직'을 편성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기관 내 파벌, 서비스 저하 등 우려 - 세계일보 2024. 기사 발췌).

업무를 수행할 직장에서 학벌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타 학벌을 배제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소외감에 이직률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사회 형평이 아닌 이중 혜택으로서 박탈감을 주고 기업에서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 해당 사회 형평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바이다.



### 건강한 블라인드 채용이란

취업준비생이었던 필자가 5년 동안 느껴온 채용시장의 방향은 결국 직무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무 중심 채용이 아니더라도 사기업, 공기업을 통틀어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이 체험형 인턴을 수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바이며,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면접 전형에서도 강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또, 자격증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두는 것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국제기업(공항) 등을 제외하고는 토익 상한선, 특정 자격증 몇 개까지만 인정 등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동점 처리를 하는 것은 어떠한가. 물론 NCS 점수 합격점이 높아짐도 인정하나 반대로 준비에 따른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격증 가점제를 유지하거나 유관 경험을 통한 서류 합격률을 조정하여 시험의 합격점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는 쓸모없는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학력으로 판별해야 한다지만 학력도 결국에는 편입 등의 비용으로 이어지고 대부분 자격증과 달리 후천적인 노력이 거의 인

정되지 않는 낙인효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의 블라인드 채용은 유지하여야 한다.

이전지역인재 전형은 수정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구 의원의 정치적 입장과 지역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타 지역 직원에 대한 배척을 넘어 탈주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 인구수 증가와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시도 단위지원 제한 및 일정 비율 필수 채용이 필요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사한 지원자는 필수적으로 해당 지역의무 근무 최소 연도를 설정하면 합격점이 낮은 지역 전형으로 입사했을 때 수도권으로 바로 지원하려는 악용 사례도 줄어들어 지역 인재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지역 인재이지만 수도권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전국권으로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바라본다.

블라인드 채용은 혁신을 넘어 효과적인 인재 발탁의 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필자는 이 채용이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역효과를 줄여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긍정적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 블라인드 채용, 두려우면 도전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



**부제: “누군가 GPA 4.5가 블라인드 되어도 괜찮냐 묻거든, 스펙을 넘어 역량을 보게 하라.”**

이 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최종합격하는 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의 영향을 다루며, “전공 평균 GPA 4.5”를 달성한 저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저의 입사수기는 이전의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알기에 제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 용기와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Chapter 1. GPA 4.5를 무색하게 만든 블라인드 채용의 숨은 뜻

대학 시절 “전공 평균 GPA 4.5”를 달성한 만큼 최선을 다해 학업에 임한 저에게 블라인드 채용은 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GPA 4.5라는 성적을 위해 밤낮없이 공부하고, 그 외에 어학 성적과 자격증까지 신경을 쓰며 노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4년간 쌓은 성과가 취업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다고 생각한 저에게 입사과정에서 오로지 직무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방식은 다소 낮설고 두려운 변화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스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위 반응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아깝지 않아? 그건 너에게 맞는 방식이 아니야, 그냥 다른 기업 알아봐.” 등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오갔습니다. GPA 4.5라는 숫자에 대한 안정감에 어느 정도 의지해 왔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 숫자가 가려진 상태에서 과연 저를 증명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걸로 드러나는 스펙 대신 직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열어 주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제 경험과 실력을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공모전과 교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찾은 문제 해결 경험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공사 현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터득한 실무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더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 Chapter 2. 서류 & 필기 전형 - 바뀐 채용 방식, 나에게 유리한 기회가 되다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입사원 채용 방식에는 2가지 큰 변화가 있었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가 폐지된 점입니다. 기존 서류 전형에서 40%의 비율을 차지하였던 자기소개서 작성이 필기 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서류 전형에 대한 부담이 줄어 전체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필기 전형에서 전공과목의 문항 수와 반영비율이 확대된 점입니다. 기존 필기 전형은 NCS 50문항(60%), 전공 30문항(40%), 총 80문항의 구성이었지만, 올해는 NCS 40문항(20%), 전공 60문항(80%), 총 100문항의 구성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학창 시절 꾸준히 다져온 전공 학습이 필기 전형에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 자신감을 얻었고, LH의 새로운 채용 방식은 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배점이 큰 주관식 전공 문제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난이도 높은

필기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OOO님, 필기 전형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보며 최종 합격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음을 실감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전형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직무 역량을 효과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 Chapter 3. 자기소개서 작성 & 면접 전형 - 경험 속에 답이 있다

앞서 언급한 고민에 대한 답은 결국 저의 경험 속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를 소개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각자 어떠한 경험을 통해 성장해 왔는지와 그에 따른 가치관(직업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스펙 위주의 경험에서 벗어나 “드론 관련 실무 경험, 집수리 봉사활동 중 수행한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주도 경험, 대한토목학회 구조물 경진대회 수상 등” 토목과 관련된 직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경험과 배운 점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격 2종을 보유하고 있어 광역철도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드론을 통해 수집한 1차원적인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BIM 운용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설계부터 유지보수 과정까지 전 공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전문가가 되고자 결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드론 관련 실무 경험은 PT 면접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PT 면접을 준비하며 현재 LH의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스테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3기 신도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드론을 활용한 현장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하며,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드론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 방안은 면접관들에게 창의적이고 현장 실무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효과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 면접은 역량을 넘어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LH라는 조직에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만큼 인성 면접에서는 솔직한 가치관과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진솔하게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인성 면접이 끝나갈 무렵, 면접관님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밀려 왔지만,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하였습니다. 이에 면접관님들께서 미소를 지으셨고,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저에 대해 보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첫 면접이라 긴장도 많이 하고, 정말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기에 아쉬운 답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입사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정년까지 30년 이상 근속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소중한 하루를 선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hapter 4. 최종 합격의 의미와 맺음말 - 취업준비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

몇몇 사람들은 저의 최종 합격 소식을 듣고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행운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지만, 운만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하였고, “제 스펙을 넘어 오롯이 직무 역량을 믿고 준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채용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변화한 만큼 자신을 신뢰하고 역량을 쌓아가면 분명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다고 믿습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며 뛰는 이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뭐라 하든 불안감이 밀려오든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스스로의 역량을 믿고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저 역시 취업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과 조연 속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스스로 실력을 쌓아온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스펙을 넘어 진정한 역량을 믿고 목표를 향해 달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꿈, 한국환경공단으로의 여정

한국환경공단 | 이○○



### 🔍 챕터1. 절망 - 전세 사기와 건강 악화 -

유난히 쌀쌀했던 겨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날씨가 참 좋았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퇴근을 하고 터덜터덜 돌아온 6평 남짓한 원룸 문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매 개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우리집에도, 옆집에도, 윗집에도 붙어 있던 이 쪽지는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2월까지 전세 사기라는 단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걱정하지 말라며 바로 해결하겠다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얼마 뒤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주소로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지하실이었습니다. 원룸이 92채가 있는 건물이고, 공인중개사도 계약 시 안전한 집이라며 안심시켜 주었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나긴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지옥과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고, 몸과 마음은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의 연가는 모두 법원과 경찰서를 가는 데 사용했습니다. 20대 청춘을 바쳐 열심히 일하며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큰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소송으로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도 나왔던 서울시 강서구 원룸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스트레스 탓인지 당해 건강검진 결과는 좋지 않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2020년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준비를 할 수 없었던 한국환경공단 2020년의 필기시험은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 🔍 챗터2. 준비 - 한국환경공단의 서류전형 -

환경공학도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근무하며 환경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사기업에서 근무해 보며 그런 마음이 들었고, 사기업 퇴사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6급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6급 환경직 대졸 신입직원은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의 10배수로 서류가 합격하면 필기시험을 치르고 모집인원의 2~3배수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어학점수, 자격증 등을 점수화하여 높은 순으로 모집인원의 10배수만큼 합격합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 전공 기사 자격증 3개, 한국사, 어학,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등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컴퓨터활용능력 1급은 만삭인 상태로 아기를 출산하기 며칠 전에 보았고, 운 좋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 챗터3. 기대 - 첫 번째 면접(2021년) -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한국환경공단 6급 신입직원 모집공고가 올라올 예정이었습니다. 출산 가방 준비 시 혹시 몰라 노트북 컴퓨터도 함께 넣었습니다. 모집공고가 올라왔고, 준비했던 노트북 컴퓨터로 산후조리원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자격증을 입사지원서에 입력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주간의 산후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 주 토요일,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합격하였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주 뒤 면접을 보게 되었지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아기가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면접 준비할 시간도 넉넉지 않았고,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직 면접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 🔍 챗터4. 상상 - 두 번째 면접(2022년) -

남편과 아기, 저까지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돌잔치도 취소하였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너무나 아팠지만 책을 폈습니다. 작년보다는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 후, 필기시험까지 합격하였습니다.

또다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입사 후 아기는 누가 돌보지? 그래도 입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 면접이니 이번에는 합격하겠지?”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더 열심히 면접을 준비했어야 했지만 김칫국부터 마셨던 것 때문일까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기작과 저감방안에 대해 설명해보라는 면접 질문에 말문이 막혔고, 그 뒤의 면접 질문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면접을 망쳤습니다. 결국, 내년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 🔍 챗터5. 도약 - 세 번째 면접(2023년) -

신입직원 공고가 나왔습니다. 2021년, 2022년과 다르게 너무나 적은 인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만큼 서류는 더 통과하기 힘들다는 뜻이었습니다. 힘든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영어시험 유효기간 만료로 영어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어시험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하다 결국 시댁 근처로 시험장소를 변경하여 영어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일주일 뒤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필기시험에 다시 도전하였습니다. 공부하다 너무 힘들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녹음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다. 사랑한다.” 시아버지의 이 말씀은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저를 채찍질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저를 예뻐해 주셨던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이번에는 꼭 합격해서 합격증을 아버지 묘소에 바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준비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NCS 직무기술서 기반의 직무경험에 대해 정리하였

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은 한국환경공단 입사 후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면접대기실에서 기다리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면접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면접입니다. 2021년에도 이 자리에 있었고, 2022년에도 이 자리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저 진짜 합격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챕터6. 비행 - 합격, 그리고 시작 -

꿈에 그리던 한국환경공단 6급 합격을 알게 된 주위 분들은 “포기할 줄 알았다,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환경공단이 성별이나 나이, 학벌 등 배경을 보지 않고 인재를 채용하는 기관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재우고 매일 밤 12시부터 저의 온전한 공부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아기가 울면 뛰어가 다시 재우고 공부했습니다. 환경분야 전공지식을 쌓고,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NCS 필기전형에 맞추어 공부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중장기 계획을 살펴보고, 환경 관련 신문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직무관련성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하므로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관심을 가져야 했고, 기안문, 내규 등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각종 문서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학생들과 경쟁해야 했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고,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종면접에서 두 번이나 낙방했지만, 결국은 합격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근무하는 환경인으로서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로 입사하였기에 남들보다 적은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게 입사한 만큼 더 열심히 근무할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저의 역량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 40대 엄마, NCS로 날개를 달다!

한국지역난방공사 | 최○○



불과 1여 년 전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의 40대이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5년 차 경력단절 여성이었습니다. 1여 년 전만 해도 주부였던 제가 공공기관의 입사 수기를 쓰고 있을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저의 공공기관 합격 소식을 듣고 '그 나이에 대단하다'라는 말을 건네었지만, 저는 공공기관으로의 문은 나이에 상관 없이 활짝 열려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과 의지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취업의 고배를 마시고 있는 청년들, 경력 단절 상태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께 위로와 용기를 건네고자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열정을 불빛 삼아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터널을 묵묵히 걸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공공기관 입사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면 꾸준히 꿈에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치열했던 지난 시간을 수기로 펼쳐보고자 합니다.

### 오랜 시간 간직했던 공공기관 입사의 꿈

저는 대기업에서 12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환경 플랜트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제 일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지내 왔습니다. 다만, 국내외로 기약 없는 장기 출장이 잦아 결혼 후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며 워라밸을 지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습니다. 모성 보호 제도의 성장 및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가파른 사회 진출 속도에 맞춘 제도 껌비는 더딘 실정이었습니다. 워킹맘으로서의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원인 동시에 엄마이기에 인생을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욱 절실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원하는 일자리로 공공기관을 꿈꾸며 지내왔습니다. 저의 전공과 경력에 맞고 워라벨을 지킬 수 있으며, 저의 능력을 사회 공헌의 형태로 환원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가 공공기관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공기관 입사라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 🔍 공공기관 합격공식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해부에 있다

취업을 흔히 전쟁에 비유합니다. 전쟁에 손자병법이 있다면 공공기관 취업 성공에도 정공법이 있는데, 바로 NCS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NCS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신뢰할 만한 채용 도구이며, 취업 준비생에게는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인지하고 배양할 수 있도록 하여 스펙 쌓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부여한 NCS는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채용 절차로 이루어졌고, 채용공고부터 서류, 필기, 면접전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각 절차별로 제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모든 전형은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별, 나이, 학력을 드러내지 않은 채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경험을 담아낸 서류전형

NCS에서 표방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입사지원서에는 지원자의 성별, 나이, 학력 등의 잣대를 배제함으로써 지원자의 능력 자체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여 공정한 채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제 나이가 지워지는 순간 저는 제 역량에만 집중하여 서류전형 내 질의에

대해 진솔하게 작성할 수 있었고 밀도 있고 충실하게 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입사지원서 내에 있는 질의에 대해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회적 경험 중 저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경험을 담백하게 기술하되 키워드를 이용하여 논리정연한 구조로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서류전형은 통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 전략을 바탕으로 형설지공(螢雪之功)의 자세로 임한 필기전형

NCS 내 직업기초능력 영역이 광범위하여 육아를 병행하며 밀도 있게 섭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맞히려 하지 않고, 70% 이상의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대개 난도가 높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들을 욕심내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NCS 시험은 시간이 제한적임을 알고 있었기에 신속한 문제 파악, 풀이 속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전처럼 연습문제를 수차례 풀어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육아를 도맡고 있어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무척 한정적이었습니다. 분절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채용공고가 난 시점부터 필기 시험일까지의 기간을 역산하여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학습량을 정하여 아이들의 등원 및 취침 이후 시간을 백분 활용하여 형설지공의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시험 당일, 지원자 대부분이 20대라는 사실에 위축되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했고, 어려운 필기 합격의 관문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 능력을 바탕으로 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면접전형

블라인드 채용의 꽃이라 불리는 면접전형은 타 지원자 대비 세월이 주는 경험이 더 많은 저조차도 쉽지 않은 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며 강구책을 마련하여 준비하였습니다.

### ■ 토론 면접

저는 토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양질의 결과 도출을 위해 협업하는 자세라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토론 주제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여 핵심을 짚고, 논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사회 및 경제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도움이 되어 토론 주제에 대한 적절하고 충실한 의견 제시가 가능했습니다.

### ■ PT(Presentation) 면접

PT 면접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미리 작성한 내용을 발표 후, 면접관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PT 내용은 핵심 키워드를 이용하여 간결하며 가독성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예상 질문에 응답하는 모습을 직접 녹화하여 어조, 발화 속도, 표정, 시선처리, 자세 등을 점검하며 필요시 교정하려 노력하였습니다.

### ■ 인 바스켓(In Basket) 면접

인 바스켓 면접은 현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회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더욱 유리한 면접이었습니다. 저는 시중에 관련 서적을 구매하여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유형별로 파악해서 질의에 적절한 답안을 시간 내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작업을 수차례 연습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인한 미작성 답안에 대해 구술로 답변 가능한 기회가 주어져, 면접관이 답변에서 원하는 핵심을 파악하여 부족한 답을 보강하였고 논점에 맞게 답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40대 엄마,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다시 날개를 달다!

최종 발표일까지의 시간이 저에게는 역겹의 시간처럼 느껴짐과 동시에, 아무리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이라 할지라도 40대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공기업 입사의 기회가 목전에 와 있었기에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합격발표일이 되었고 꿈처럼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조차 어려웠습니다. NCS가 있었기에 다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날개가 생겼다는 사실에 그저 감격스러웠습니다.

평소 공공기관의 채용 방식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의 체계성, 평가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투명성은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의 상징으로 저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NCS는 편견 없이 오로지 개인의 역량으로만 평가되는 것으로, 저에게 자신감과 신뢰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더불어 NCS는 조직 내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로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사료되어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더욱 기대감을 갖도록 해 주었습니다.



## 사회 공헌에의 삶 그리고 자부심

저는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운영부에서 3교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국민의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가 맡은 업무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단언컨대 NCS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NCS를 통해 제 역량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업에서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NCS로 역량이 입증된 신입사원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세차게 두드리면 반드시 그 문은 열릴 것입니다. 강한 의지 앞에서 나이, 성별, 학력은 그저 허울에 불과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역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줄 채용 방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rounded rectangular bars of varying lengths.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인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 Ⅲ

## 장애인 채용

- 1 39전 40기
- 2 신입사원이 미래의 후배에게 전하는 작은 격려
- 3 믿는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기도하세요!  
내 손은 떠났습니다
- 4 위기를 기회로 만든 도전
- 5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취업관문
- 6 내가 꿈꾸던 '평범한 삶'

## 39전 40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박○○



## 🔍 나의 할머니

나는 태어나면서 황달과 경기로 인해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되었다. 당시, 가정 출산으로 집에만 있었고 종일 잠만 자던 나의 이상을 가족들이 감지하고 병원에 데려 갔을 때, 의사의 말은 가족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아기는 아마 평생 못 걸을 겁니다. 앓을 수만 있어도 기적이예요. 너무 늦게 왔습니다.”

나의 장애로 인해 가정의 균형은 무너져 부모님은 이혼 후, 아버지는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으로 가셨고 친할머니 손에 나를 맡기게 되었다. 할머니는 당신의 큰 손자가 앉아서 밥을 먹고 더디게나마 걸을 수 있게 하고자 노력하셨다. 내가 4살 때부터 할머니는 날 업고 물리치료와 침술치료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2년간 다니셨다. 어릴 적이라 기억은 안나지만 온 관절을 비틀어대던 물리치료가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던 기억은 남아 있다.

그 치료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던 할머니의 정성에 하늘이 감복했던 것이었을까? 난 혼자 앓을 수 있었고 설 수 있었고 더디게나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5살 때였다.

나아지는 내 모습에 할머니는 점점 더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된다. 동네 작은 교회 부설

유치원에 입학시킨 거였다. 할머니의 도전은 성공적이었다. 내가 또래들보다 우수한 학습능력을 보이며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은 또 다른 문제였다. 내 장애를 문제로 집 앞에 있던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불허했다. 이에 할머니는 '내 손주가 다른 친구들보다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그때, 특수학교에 보내겠으니 딱 1개월만 지켜봐 주십시오.'라며 교장선생님을 설득했고 그렇게 조건부 입학이 허락되었다. 그 이후, 난 계속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돌이켜 보면, 그때 할머니께서 다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했다면, 지금 난 어찌 되었을까 상상해보곤 한다. 상상이지만 너무 암울한 그림이 그려진다.

### 🔍 나의 직업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고 공부하며 나의 학창시절은 보통의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흘러갔고 수능을 보고 행정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3년간 규율에 얽매어 지내다 대학에 진학하니 급작스런 자유로움에 방탕함이 물들게 되었고 목표로 하던 공무원은 고사하고 졸업도 어려울 정도로 안일하게 대학생살을 하였다.

당시, 공무원시험은 점점 지원받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갈리게 되었으나 난 그런 지원을 바랄 형편이 아니었다. 성인이 된 내게 아버지는 독립을 하라며 더 이상 지원을 안하겠다는 하시고 연로하신 할머니께 기댈 수도 없었다. 1학년 때부터 혼자 살면서 방학에는 용돈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4학년 때는 도서관 근로장학생으로 용돈벌이를 했고, 졸업 후에는 공공근로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취업을 고민하던 중에 사회복지사가 눈에 들어왔다. 대학진학도 사회복지학과로 가고 싶었지만 공무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행정학과로 진학한 터였다. 아무튼, 사이버대학 1년 과정을 마치면 사회복지사 취득이 가능하기에 아버지께 사정하여 학비를 지원받아 2급을 취득했고 1년 후에 사회복지사 1급도 시험을 치러 취득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면허와 사무자동화산업기사도 취득했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은 난공불락이었다. 복지기관 약 200여 군데에 이력서를 넣고 10여 군데 면접을 본 후, 겨우 작은 장애인단체에 입사하여 나이 서른에 처음으로 그럴 듯한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그곳에서 2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일을 하다 기관의 사정이 생겨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3개월간 쉬다 운 좋게 새로 개관한 장애인복지관에 입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배치되어 대출업무도 보고 대체도서를 제작하고 관련 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맡아 즐겁게 일을 했다. 그러다 지역복지팀으로 부서이동을 하게 되어 재가장애인 프로그램,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동아리, 목욕, 자원봉사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복지관에서 5년 여를 근무하며 야근은 물론, 철야업무도 하는 등,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다 만 5년이 되던 12월 어느 날, 관장님 호출로 면담을 갖게 된다. 그것은 재단의 다른 산하시설로 옮겨 근무할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빙자한 명령이었다. 그렇게 난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6년을 시작한다.



## 불혹, 나의 또 다른 도전

기관 이동은 명목상 제안이었으나 분명한 명령이었고 이미 그 뜻을 정한 관장님의 의지를 보았기에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곳도 장애인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기관이었고 잘 적응하려 했으나, 역시 어려웠다. 여기서 기술하긴 어려우나 여러 문제가 있었고 내 의지에 의한 이동이 아니기에 정도 들지 않았다. 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의미 없게 살아야 하나? 여기서 더 있어 봤자 호봉만 오르고 승진은 안 될 것이 뻔한데,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될 것인가?

그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내게 ‘공기업 알아봐. 장애인채용 꽤 있던데?’ 하여 제안 해줘서 공기업 취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장애인 채용은 비록 소수지만 끊임없이 공고가 게시되었다. 가산점이 될 만한 자격증을 조사하고 채용직무의 종류를 알아보고 필기시험 과목에 대해 알아봤다.

일단 가산점이 될 만한 자격증 중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목표로 삼았다. 문제집을 2권 구입하여 퇴근 후, 집 근처 시립도서관에서 매일 2시간을 풀었다. 1개월간 공부해서 한국사능력검정 1급을 취득했다. 1단계 클리어.

2단계는 취업사이트에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취업사이트의 메일링 서비스는 자신

이 원하는 키워드나 직무 등을 정하여 관련 채용공고가 나오면 메일로 보내 주는 서비스로 일 2~3회 정도 메일이 송부되므로 메일을 보고 지원 가능한 채용이 있으면 지원하면 되기에 일일이 공고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3단계. NCS 및 전공시험 준비하기. NCS 문제집을 구입하여 한국사자격증 때처럼 공부를 시작했고 추가적으로 행정학이나 경영학을 전공시험의 기준으로 하여 공부했다. 매일 주경야독하고 주말 이틀 중 하루는 도서관에 갔었다. 이런 준비 끝에 지원서를 처음 작성한 때가, 내 나이 39였다. 그렇게 지원하는 횟수는 10군데, 15군데, 17군데... 매년 점점 늘어만 갔다.

초반엔 지원서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갈수록 합격하는 횟수가 늘었고 필기시험의 기회도 늘었다. 필기시험의 경우도, 초반 2년간 합격률은 반타작을 못 넘었지만 문제집을 많이 풀면서 점차 실력이 누적되어 최종 80%를 상회하게 되었다.

마지막은 최종면접. 제목에서 보듯 공기업 면접을 약 40회 이상 보았다. 많이 본 곳은 1기관에서 면접 총 6회에 도전한 곳도 있다.

면접을 본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었지만 강원도와 대전 등 지방도 많았다. 면접준비를 위해 인터넷 검색은 물론 유튜브 면접 관련 영상 시청, 유료 기업리뷰 사이트 등을 통해 기출 면접 유형을 찾고 예상 질문을 유추하여 대본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원서작성, 필기공부, 면접준비를 하며 근무를 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고 심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게 되어 기관이동 만 5년만에 퇴사를 결심하여 사회복지사 13년 커리어를 접었다. 무모할 수도 있었지만, 약 18개월간 더욱 공기업 취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면접 기회는 늘었다. 그러나, 연이은 탈락에 자존감은 바닥을 뚫을 기세였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0여 군데 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상반기에 결정이 안 나면 다시 사회복지사로 돌아갈 생각이었고, 돌아가더라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본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경험치가 쌓이는 것은 게임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면접도 그랬다. 올해 본 면접에서 단번에 합격하지는 못했으나 예비합격의 횟수와 순위가 상승하였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서 2번째로 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예비합격 1순위였다. '역시 안되나? 다시 돌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추가합격을 했다. 나이 많은 신입인 만큼 요령피우

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히 업무를 보고 있고 시보평가도 잘 통과하여 정직원이 되었다. 합격 후, 근무하던 복지관과 기관에 찾아가 친하던 동료들에게 밥도 사고 부서별로 간식을 선물하기도 했다. 현재 내 나이 만 44세이다.

다수의 필기와 면접을 보며 아쉬웠던 점이 2가지 정도 있다. 먼저 필기에서는 장애인 채용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난 실제장애는 뇌병변이고 목디스크로 인해 필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등록장애는 하지장애 지체로 되어 있다. 장애등록 당시, 난 잘 걷지 못했고 뇌병변이 장애의 종류가 아니었다. 지금 다시 장애등급을 받으면 걷는다는 이유로 등급은 떨어지고 시일도 매우 오래 걸리기에 재판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서 뇌병변 편의제공을 받았다. 하지만, 몇몇 시험에서는 장애인증명서에만 의해 편의를 제공한다며 아무 편의제공이 없던 고사장도 있었다. 장애인도 나이를 먹을수록 불편한 곳이 달라질 수도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에 장애인증명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검토를 통해 편의제공을 검토했으면 한다.

또 다른 것은 공고상, 사무직을 채용해서 지원하여 어렵게 면접까지 갔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전화상담업무가 주를 이룬다며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뇌병변 장애에 언어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전화업무가 많다면 채용공고에 '언어 장애가 있으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다면 지원에 있어 심사숙고하여 수고를 덜 했을 것이다.

난 그간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조금 더 나아지고자 노력 중이며, 이러한 근성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듯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장애가 있건 비장애인이건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다. 사소하더라도 목표가 생겼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길 바란다. 우린 오늘이 제일 젊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또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길 바란다. 마냥 좋지도 마냥 나쁘기만 하지도 않은 것이 인생이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바라던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신입사원이 미래의 후배에게 전하는 작은 격려

한국마사회 | 박○○



장애는 가난을 동반한다. 모든 장애인 가정이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가족구성원의 장애가 가족 전체의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불행히도 우리 가족은 그 대부분에 속했다.

나의 병간호를 위해 어머니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상주해 계셨고, 인공호흡기가 나에게 숨을 불어넣을 때마다 쌓여가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살던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를 가야 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도 다니던 직장을 버리고 시골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부모님의 귀향은 사실 '귀양'에 가까웠다.

가족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버티기엔 초등학생은 너무 어려웠다. 가끔은 나를 쳤던 그 자동차가 조금 더 세게 치지 못했음을 원망했고, 그날 초록불인 보행자 신호등을 내가 섹맹이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 자책하는 긴 시간이 지나갔다. 전교생이 7명 남짓인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나를 위해 학교 시설을 개조하고 학용품을 제공해 주는 등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또한 친구들은 편견 없이 나를 대하며 휠체어를 밀고 들판, 계곡을 구경시켜 주었다. 삶에 감사하다는 느낌을 처음 받게 된 것이 이때쯤인 것 같다.

가족의 희생, 주변 사람들의 배려, 그리고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나는 무탈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남들보다 집에 조용히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던 탓에 독서에 취미를 붙였고, 공부에 소질이 아주 없진 않아 고등학교 기간 내내 전교 1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국립대학교라 등록금이 저렴한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겐 최종 도착지일 수도 있는 명문대 진학이지만 나에게는 돈을 벌기 위해 거쳐 가는 과정일 뿐이었다. 우리 가족의 생계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고 대학교 등록금도 지역사회 장학금이 없었다면 내지 못할 정도였다. 한 학기라도 장학금을 놓치면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대학교 캠퍼스의 낭만을 느낄 새 없이 강의실과 도서관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다. 어느덧 졸업생이 된 나는 나를 기다리는 것이 어미일지 포식자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껌질을 깨고 나와야 하는 병아리 같은 신세였다.

장애인에게 직업이 주는 의미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 이상이다.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티는 의존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자립으로 향하는 발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벽은 더욱 높게 느껴졌다. 경험을 쌓기 위해 지원했던 대기업 인턴은 매번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했다. 간혹 지원할 수 있었던 공공기관의 인턴은 '체험형'이라는 꼬리표가 달렸고 정규직 일자리는 손에 닿을 듯 잡히지 않는 채로 시간이 흘렀다. 늘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 감사함을 되새기며 살았지만 장애인 취준생으로서 겪은 사회는 너무나 냉혹했다.

시간이 흘러 블라인드 채용으로의 전환, 제한경쟁으로 장애인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마사회에서 제한경쟁 장애인 채용을 실시한다는 공고문을 확인했다. 이전부터 공기업으로서 한국마사회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곧바로 채용 준비를 시작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고, 채용 예정인원이 1명뿐이라서 내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은 없었지만 나에게겐 간절한 기회였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장애를 가진 취준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며 느끼는 공통된 감정은 무력감일 것이다. 서류-필기-심층면접-최종면접의 단계를 모두 거치는 동안 내 장애가 한번쯤은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어차피 정규직으로 채용될 일 없으니 체험형 인턴

으로라도 만족한다는 체념이다. 장애와 가난의 고통을 모두 겪으면서 이 무력감이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깊이 공감한다. 무력감이 습관이 되면 작은 성공에 안주하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달릴 수 있음에도 걷게 되는 상황이 지속된다. 그 틀을 깨는 것이 힘들지만 분명 도전할 가치가 있다.

NCS 문제집과 전공과목 개론을 사서 열심히 공부하며 서류심사와 필기심사를 통과했다. 심층면접의 경우 토론면접과 상황면접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주어지는 질문들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이라고 해서 선심 쓰듯 혹은 고용의무를 채우기 위해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면접대상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전문적인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지막 최종면접은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이었는데, 최종면접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대학교 입학 당시와 흡사했다.

한국마사회 입사 후 나는 재활승마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다. 재활승마란 장애인들이 말(馬)을 통한 기승·비기승 활동으로 신체 및 정서적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말매개활동의 하나이다. 장애인으로서 채용된 내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될 수 있어 자연스레 동기부여가 되었고, 사업으로 느끼는 성취감도 다른 사람에 비해 크다고 생각한다. 채용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서배치까지 신경을 써준 인사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또한 장애인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최저임금 적용에도 예외가 되는 등 한국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가 좋지 않은 편임을 감안할 때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을 진행한 한국마사회의 진심에 감동하였다.

나 역시 장애인이기에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 그중에서도 적극적인 자립을 위해 혹은 더 큰 꿈을 위해 취업에 도전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싶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하는지 막막하고, 사회는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내 처지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껴 답답할 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합격 수기를 작성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나름의 노력으로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였고 그 꿈을 후배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장애인에 대한 회사의 문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채용의 기회도 다양해지고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비판하기보다 제한 경쟁의 문을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장애를 얻게 된 이후 나는 항상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부끄럽고 보잘 것 없는 내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된다면 그동안 받기만 한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신입사원이 된 내가 후배가 될 또 다른 신입사원들에게 따듯한 박수를 간절히 보내고 싶은 이유다.

## 믿는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기도하세요! 내 손은 떠났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신○○



### 🔍 살아있으면 됐잖아

저는 유아기 때 선천성 뇌동정맥기형으로 뇌수술을 두 번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오른쪽 편마비가 있습니다.

그 당시, 두 번째 수술실로 향하던 의사는 저희 부모님께 “믿는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기도하라. 의사이기에 우리는 수술하러 들어가나 우리 손은 떠났다.”라고 말을 한 후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수술이 끝났고, 수술 후유증으로는 하반신 마비, 오른쪽 편마비, 최악의 경우 살아도 식물인간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고 저희 가족들은 제가 깨어나길, 회복되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의식이 돌아왔고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은 많았고, 장기간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저에겐 병원이 집이었고, 놀이터였으며 간호사 선생님들이 친구가 되어 주셨고, 주사기가 제 장난감이었습니다. 오랜 병동 생활이 끝나 마지막 회진 돌던 담당의는 “혹시 또 터지면(뇌혈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가는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신경 쓰면 안 되니깐 공부도 시키지마. 살아있으면 됐잖아”라는 말을 듣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부모님의 보호 아래 성장하였고, 중간 중간 많은 고비들도 있었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살아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아플 때마다 나는 왜 아파야 하는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해야 할까? 10분이면 외출 수 있는 단어가 나는 100분이 되어도 반밖에 외출 수가 없고 2~3시간 공부량을 나는 밤을 새워 공부해도 왜 외워지지 않는걸까? 공부 욕심이 한없이 많은데 마음과 몸의 컨디션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 🔍 나에게 무거운 단어 '장애인'

한창 외모에도 관심 많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을 스무 살에 어머니는 장애인 진단을 받아야 나중에 살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며 수술할 때 계셨던 담당의에게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그날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의 옷차림과 높은 구두를 신고 의사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애인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잇을 만하면 아픔은 계속 찾아왔고, 일도 꾸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긴 시간 근무가 어려웠고, 아플 때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생각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조차도 도전해 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 Q 나의 존재는 남에게 피해가 되나?

단기로 고용노동부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고, 이전에 경험과 경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의 불편한 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서류를 입력해야 하고 2명씩 짝지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오른손이 불편한 저는 독수리타자로 다른 선생님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의 파트너는 더 많은 양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때 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불편한 몸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시작하기에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만약 사기업에 저의 불편한 몸 상태를 설명한다면 혹, 장애로 진단받았을 때 채용의 길도 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한 지, 20년이 지나고 후유증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진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고, 2022년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예전에는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했던 나를 이제는 다시 태어나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 공공기관 채용공고를 보며 내가 해낼 수 있는 업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 나를 위한 자리, 나를 위한 기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장애인전형으로 4시간 근무와(일반 행정 총무) 이전 업무 경력으로 채용하는 것을 보고 정말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종까지 오는 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저에게 그 자리가 합격이라는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막상 근무 시간이 짧은 것이 아쉬웠지만 공공기관이 익숙하지 않은 저에겐 적응의 시간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아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더 소중합니다.

처음에는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버벅거리며 업무를 하다 보니 쉽지 않았는데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며,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면 흔쾌히 알려 주시는 실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채용분야(일반 행정 총무)에 맞게 업무 분장을 지정하여 주고, 4시간 근무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받음으로써, 부담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중간 중간 업무상황도 확인해 주시며 신경써 주기도 하였고, 또 편견 없이 다가오셔서 도와주고 함께하려는 동기가 있어 적응하기 참 좋았습니다.

또한 실 업무에 도움될 수 있는 교육이나 일일 출장으로 실 행정을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로 더 건강한 체력을 만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행정뿐 아니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직원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으며 채울 수 있어 너무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 하루의 나의 삶을 보여주세요!

‘장애인’이라는 단어, 부끄럽지 않아도 되고 내 자리, 내 역할, 내 이름, 내 시간, 내 마음, 내 노력, 내 능력, 내 삶을 보여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매일 출근길이 즐겁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주어진 기회가 아닙니다.

용기내 보세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기를 기회로 만든 도전

한국환경공단 | 김○○



‘기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가 놓친 건 다른 사람이 잡는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주임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은 제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좌우명입니다. 기회는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잡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닌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사무직이라는 꿈을 가졌고, 2019년 대학 졸업 이후 2020년 취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염병이 시작되었고, 이는 공공기관 채용의 대폭 축소 혹은 중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저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약 15년 전인 고등학생 시절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고, 이후 그것이 유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그저 말귀가 조금 어두운 정도였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상대방의 입을 못 보면 소통이 불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기에 이는 저에게 가장 큰 악재로 다가왔고, 현 상황을 전염병 탓으로 돌리며 애써 현실을 외면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렇게 2021년이 되었으나 전염병은 더욱 심해졌고, 종종 청각장애 판정까지 받고 나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장애 판정으로 인해 공공기관 사회 형평 전형 지원 자격이 생기면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시작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이었습니다. 2021년 6월, 제가 목표로 했던 기업의 청년인턴에 합격하였고, 연고도 전혀 없는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여 포기하려 했던 꿈을 향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2021년 상반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분이었고, 특히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것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직접 부딪히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인사팀이라는 주요 부서에 배치받았고,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하며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사 시즌으로 팀원 모두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쁨에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으며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약 3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두의 인정을 받으며 인턴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았고, 무엇보다 장애를 극복하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꿈을 위해 계속 노력하였고, 2022년 2월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2022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이번에는 사무 부서가 아닌 사업 부서로 배치받게 되어, 신규 프로젝트 업무 보조를 하며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 2주가 지날 무렵, 한국환경공단 정규직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인턴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한 후 이제는 정규직에도 도전해 보겠다 마음먹었고, 그 결실이 마침내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인턴 생활이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공단에 첫 출근을 한 지 어느덧 3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을 극복하고 취업에 성공한 과정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입사 이후의 이야기는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에 입사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후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다른 약점이 있다고 하여 낙담한 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다가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용기를 얻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작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취업관문

한국마사회 | 김○○



### 한국마사회 청년인턴 지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2022년 11월, 한국마사회에서 장애인 청년인턴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주변에서는 다른 금융기업에서 인턴을 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조언도 했었지만, 나에게 한국마사회는 일반 공기업이 아니라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준 고마우면서도 더 알고 싶은 기업이었다. 그렇게 다른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고 한국마사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인턴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턴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을 준비하며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면접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대학 시절 내내 조별과제를 하는 경우 늘 발표를 맡아왔던 만큼, 면접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 캐릭터로 면접을 진행한다면 당시로써는 당최 왜 번거롭게 메타버스 면접을 진행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서울 경마공원 면접장소에 도착한 직후, 번거로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왜 메타버스 공간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면접 대기 부스에는 혼자서는 아예 거동이 힘들어 보이는 지원자도 있었고 청각장애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한 지원자도 있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지원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의 캐릭터가 되어 제각각의 방법으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면접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면접 전형까지 통과한 인턴들은 불법단속부 소속으로,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불법경매 운영 사이트 및 홍보물을 채증하고 신고·보고하는 사이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미술관에서 장애가 되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음악회에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나와 다른 인턴들은 인터넷 공간 안에서 어떠한 장애도 갖지 않고 꾸준한 업무성과를 낼 수 있었다. 실무에 투입되고 첫 3개월간 단 13명이 2만여 건이 넘는 불법 사이트·홍보물 신고 실적을 기록했으니, 회사에서도 이 정도 성과가 나올 거라곤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인턴 5개월 차를 맞이한 2023년 4월,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가 올라왔고 낮에는 인턴 업무를, 저녁에는 공채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인턴 경력과 한국어, 외국어 자격증이 있었기에 서류전형 통과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선발인원의 5배수, 즉 서류전형 합격자 112명 중 5등 안에 들어야 하는 필기전형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5월. 정신을 차려 보니 필기시험 당일이었다. 모든 것은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편하게 먹고 시험을 응시했다. 그 덕인지 좋은 결과가 나왔고, 바로 면접전형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나보다 마사회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지원자는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담하게 한 단계씩 준비해 나갔던 것 같다. 그렇게 5명 중 2명을 선발하는 1차 면접을 통과하고, 마지막 관문인 2차 최종면접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다.

6월 합격자 발표일. 1초에 한 번씩 합격자 발표 사이트에서 새로고침 키를 누르며 결과발표를 기다렸다. 초조해 하며 계속 기다리다 보니 최종면접 결과가 발표되었고, 나는 곧바로 인사팀 채용담당자에게 두 개의 서류를 보내게 되었다. 청년인턴 의원면직 서류 1부, 합격자 제출 서류 1부.

그렇게 처음이자 마지막 인턴생활을 마무리하며, 한국마사회에서 신입사원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행정학에서는 장애를 의료적(medical) 모델과 사회적(social) 모델로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신체기능 장애를 뜻하고, 후자의 경우 구조적 장벽으로 인한 유·무형의 사회적 배제를 뜻한다. 만약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있는데 통행로에 계단밖에 없다면 두 가지 모델에 모두 적용되지만, 휠체어용 경사로가 생긴다면 사회적 모델 관점에서는 장애를 해결한 셈이 되는 것이다.

불법단속부에서 인턴업무를 시작하기 전, 나흘간 관련 법령 및 실무교육을 받았었는데 이때 회사에서 수화통역사 선생님을 모셔와 교육내용을 동시통역했었다. 이 경우 역시 사회적 모델 관점에서는 장애를 해결한 것이 된다.

몇 년 전부터 배리어 프리라는 용어가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했다. 영화관 의자, 대중교통, 심지어는 햄버거집 키오스크까지. 배리어 프리가 적용되지 않은 분야를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이다.

그렇다면 취업관문에는 배리어 프리가 적용되었는가? 나야 운이 좋게도 배리어 프리가 적용된 취업관문을 통과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말 그대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장벽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배리어 프리 취업관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장벽을 없애야 할까. 첫째는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려운 물리적인 근무환경이고, 둘째는 장애인은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인지적·심리적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장벽도, 두 번째 장벽도 모두 없어진 조직에서는 장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직장인이 있을 뿐이다. 물론 장벽을 허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두 번째 장벽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언젠간 우리 사회에 이런 장벽들이 모두 없어져서, 장애인 채용제도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

## 내가 꿈꾸던 ‘평범한 삶’

IBS기초과학연구원 | 임○○



### 어는 말

중학생 시절쯤,

시험을 마치고 ‘엄마, 영어 듣기평가가 하나도 안들렸어.’라며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는데, 그 당시 어머니는 ‘공부를 안해서 그래.’라며 핀잔 섞인 어투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도 귀가 안들리는 건 여전, 아니 더 안좋아졌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원에 갔을 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청이라고 했다.

보청기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 장애인으로 등록까지 하게 되었다.

‘장.애.인.’

이 세 음절이 마치 나에게 ‘너는 외톨이야. 외딴 섬에 떨어진 외톨이.’라는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이었다.

점점 낮아지는 자존감에 원체 사람을 사귀기 어려워 하는 내가 점점 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피했고, 말수도 적어졌다.

신은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준다는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게 아닌가.

나는 이만한 고통을 견딜 자신이, 이겨낼 자신이 없는데…. 하며 정말 누구보다도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라게 되었다.

평범한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했던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다.

대학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였으나, 나의 부족한 부분과 적성이 일과 맞지 않았고 건강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여서 더욱이 지속할 수 없었다.

그래도 좋아하는 관심분야가 가르치는 쪽이라 이쪽 계열의 일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조차도 귀가 잘 안들리는 걸 눈치챈 사람들 때문에 취업 무효가 되기도 했다.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평생 보살핌을 받을 수는 없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제적, 사회적인 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였다.

결론을 내리니 다시 일어나야 했다.

장애로 인해 여러가지 부수적인 지출이 꽤 크므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필요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정적인 곳은 장애인도 같이 채용하는 조건이 아닌 일반 전형이 다수여서 서류를 넣을 때 장애를 서류상에 오픈하여 지원하면 서류 문턱에서 통과조차 되지 않거나, 간혹 된다하더라도 '궁금해서 만나보고 싶었다'거나 하는, 채용 목적이 아닌 본인들의 일종의 '호기심 대상'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일반 전형이 이렇다 보니 내게 그나마 문턱이 조금 낮은 전형은 장애인 병행 채용, 또는 장애인만 채용하는 채용들이었다.

이 전형들의 대부분이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지만 내가 어디 찬밥 더운밥 가릴 때인가...

조금 아쉽기는 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감사함이 어디냐며 여러 군데 지원한 결과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간들 속에서 나 역시 조금 더 잘 알아듣고자 입모양을

집중적으로 보고 유추를 하거나, 다시 되묻거나 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려 했으며 인공과 우수술과 언어 듣기 재활훈련을 하며 불편함을 개선하려고 하였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사회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한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의 직장인 'IBS 기초과학연구원'은 근 6년을 일한 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고 알아보던 중 취업 알선 기관에서 '이런 곳이 있는데, 한번 지원해 보지 않겠냐'하며 권유해 주셔서 알게 되었다.

기간제 채용이지만 장애인 채용이었고 청력장애를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사무직이었으며, 분명 이곳에서 근무를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고, 채용도 블라인드로 이뤄진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운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솔직했던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합격.

이전 직장에서의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업무에 임했고, 무엇보다 정말 좋은 팀장님과 팀원분들을 만나 배려와 격려 속에서 내 몫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더욱더 감사하게도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이곳은 나에게 있어 정말 최고의 직장이다.

듣기가 불편한 내가 사내 메신저나 메일로 정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 있고, 사무용 일반전화를 휴대전화와 연결하여 전화로 하는 소통도 비교적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직원으로서 내게 맞는 몫을 부여받아 충실히 해낼 수 있으며, 워킹맘이기도 한 내가 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해 자유롭게 업무시간을 조정하며 아이를 키우고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열린 마음과 따뜻한 배려로 함께 할 수 있게 많은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준 것...

내가 꿈꾸던 '평범한 삶'을 선물해 준 곳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글에 담아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스스로가 ‘평범한 삶’을 위해 취업 문을 계속 두드렸다는 것과 지금의 직장이 공공기관이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장애인을 채용했고, 좋은 사내 복지제도와 구성원들이 차별 없는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장애인들은 각자의 삶에서 불편한 부분이 많고 제약도 많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본문에도 언급했다시피 장애인이라고 해서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는 없고,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 병원비 지출도 크고 부수적인 지출(복지용구 구입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된, 안정적인 생활이 누구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채용하려는 곳을 보면 짧게는 몇 개월로 채 1년이 되지 않게끔 채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장애인고용률’만 맞추기 급급하거나 연장 불가, 정규직 전환 불가 혹은 알고 보니 장애에 적합한 직무가 아니라던지 하는 이유 등으로 취업이 불가하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곳도 많다.

또한 기관의 구성원들도 ‘장애인과 일을 어떻게 해? 이들이 일을 할 수 있기는 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거나 은근히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장애는 단지 불편함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장애인들도 하나의 인격체이며 본인이 가진 장애를 극복하면서 누구보다 더 잘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위한 채용이 아닌,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구성원들이 열린 마음,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각 업무별로 적합한 장애인도 함께 채용하고 이 과정에서 인재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장애인과 기관 모두 윈-윈하는 사례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면 민간기업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이 경우 크게 본다면 현재의 행정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행정·복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분들 역시 ‘나는 장애인인데 받아줄까?’ 하며 겁내지 말고 차근차근 도전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것어요,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rounded rectangular bars of varying lengths.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 IV

## 지역인재 채용



- 1 비수도권 출신으로 비수도권에서 살아남기
- 2 흑백취준생: 공공기관 취업 전쟁
- 3 2, 106, 14
- 4 꿈을 향한 비행일지
- 5 대학 현장실습에서 시작된 나의 공공기관 목표 달성기
- 6 지방대학교 캠퍼스에서 전 세계 무대로 뛰어들다

## 비수도권 출신으로 비수도권에서 살아남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김○○



### 수도권으로 모이는 사람들

최근 넷플릭스의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국내외에서 유명한 백수저 요리사 20명, 그리고 치열한 선발전을 통과한 흑수저 요리사 20명이 대결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 인기에 덩달아 ‘전국 흑백요리사 지도’도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지도에는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 요리사 40명 중 30명의 식당이 서울에 있는 반면에 호남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요리사는 단 1명뿐이다. 40명 중 30명과 1명의 차이, 즉 75%와 2.5%의 차이는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

프로그램 제작 장소와 출연진 식당 간의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그에 따른 섭외 성공 확률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에 더 많은 고급 식당이 밀집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돈이 유통되고, 돈이 유통되는 곳에 고급 식당도 생긴다. 나는 이 한 장의 ‘전국 흑백요리사 지도’가 인구 및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1만 2,619명이었다. 그중 서울·경기 지역 인구는 2,318만 1,626명. 전 국민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4.82%가 모두 서울·경기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과 학부모가 ‘인서울’ 대학을 최종 목표로 삼고, 대부분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와중에,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나는 어떻게 수도권으로 떠날 필요 없이 비수도권에 정착할 수 있었을까?

## Q 절반 이상이 직장이 없는 광주 청년들

내 고향은 광주다. 내 출신 대학도, 대학원도 모두 광주에 있다. 수도권 사람들이 그들에게 더 가깝고 익숙한 '경기도 광주'와 구별하기 위해 '전라도 광주'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로 그곳이다. 흑백요리사 40명 중 단 1명의 호남권 요리사였던 안유성 명장이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흑백요리사 중에는 2.5%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는 2.82%에 해당하는 146만 3,254명이 광주에 살고 있다.

광주에서는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6월 4일, 박희율 광주시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의 청년고용률이 10년째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년 동안 전국 평균 청년고용률은 늘 40%를 하회한 적이 없었지만, 광주의 청년고용률은 10년째 단 한 번도 40%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것이다.

취직 어렵기로 유명한 도시에서 취직 어렵기로 유명한 철학과에 다녔다. 취업보다는 학업에 재주가 있다고 믿었던 나는 급기야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된다. 대학과 대학원이라는 큰 담장 안에 있었을 때는 광주 청년고용률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게 드리워지지 않았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 살 길이 나타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던 나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된 원서를 읽으며 석사 논문을 쓰다가 지쳐 마침내 학위 받기를 포기하게 된다.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구직 시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대학 동기와 선후배들이 왜 하나둘 고향을 떠나갔는지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안전했던 대학과 대학원의 담장 밖에 질게 드리워져 있던 그늘에 발을 내디딘 후부터다.

## Q 비수도권 출신으로 비수도권에서 살아남기

나는 현재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재직 중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2015년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우리 기관처럼 전국 각지에 생긴 혁신도시에 청사를 이전한 공공기관은 부산 13개,

대구 10개, 광주/전남 16개, 울산 9개, 강원 12개, 충북 11개, 전북 12개, 경북 11개, 경남 11개, 제주 7개로, 총 112개나 된다.

이렇게 1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이유는 수도권에 과밀집되어 있는 인프라를 전국으로 분산시켜 각 지역에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지역에 내려오게 되면 그 주변에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거리에 카페와 식당이 생겨나는 등 새로운 생활 터전이 생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지 않고도 여러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내가 공공기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광주 주변 혁신도시에 많은 기관들이 이전했기 때문이었다. 취업 초기에는 광주 안에서만 일자리를 찾으며 채용공고 게시판을 들락날락했다. 하지만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많지 않았다. 이에 광주에 한정하지 않고 전북과 전남으로 검색 범위를 넓히자, 호남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이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러 공공기관 중에서 내 적성에 맞는 기관을 골라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 10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철학을 전공했던 나에게는 그 당시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런 관심이 2020년 1월에 상반기 채용공고문을 클릭하게 만들었다. 이 기관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와 논술, 면접을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관문보다 무섭게 느껴졌던 건, 전국에 있는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 단 2명만 정규직으로 뽑는다는 의미로 ‘채용인원’ 표에 적혀 있던 ‘2’라는 숫자였다.

감사하게도 우대사항 목록에 ‘지역인재’가 있었다. 최종 출신학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하면 자격에 부합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전북 지역 소재 학교 출신인 경우에는 총점의 3%를, 전북 외 지역 소재 학교 출신인 경우에는 총점의 2%를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었다. 나는 광주에 있는 대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후자에

속했다. 지역인재 우대 제도가 든든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긴장감을 이겨내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정성 들여 쓴 서류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이어진 논술시험, 면접에도 성실하게 응했다. 그리고 면접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내가 전국 2명 안에 들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잡알리오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당시 경쟁률이 109대 1이었다고 한다. 합격 요인 중 몇 퍼센트가 천운이고 몇 퍼센트가 내 실력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2%의 가산점이 붙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했다. 그동안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나 ‘지방대 졸업생’으로만 살았던 나에게 ‘지역인재’라는 정체성이 추가되는 순간이었다.



### 살아남는 것과 사는 것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를 우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역의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 간다. 멀리 있는 것일수록 더 낯설고 희미하게,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익숙하고 선명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거점을 쫓개면 관점이 여러 개 생긴다.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던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그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의 수만큼 지역의 관점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관점을 멀리서 ‘상상’하지 않고, 그 지역에 발을 딛고 서서 비로소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은 이때 마련될 수 있다.

입사 5주년을 몇 개월 앞둔 지금, 나는 내가 실제로 지역의 관점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돌이켜봤다. 기관 차원에서 지역출판에 지원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전체 출판 산업 분야를 놓고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 행정 인프라는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출판 인프라는 아직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담론은 대부분의 유통사와 출판사가 있는 수도권에서 주로 이뤄지고, 지역에서 출판사를 차리거나 서점을 여는 것은 일종의 ‘도전’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공공의 영역에서 시작된 거점 분산의 노력과 의의가 민간의 영역으로 확장되려면 수많은 한계와 난관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민간 기업은 공공성보다는 금전적 손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제 도래할지 모를 그날에는 비수도권 지역도 기업하기 좋고 취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 있기를 바란다. 그 미래에는 나와 비슷한 또 한 명의 청년이 비수도권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흑백취준생: 공공기관 취업 전쟁

한국자산관리공사 | 김○○



### 언더독 지역인재 흑(黑) vs. 인서울 스펙 수도권 인재 백(白)

“귀하의 우수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직무역량이 이븐(even)하지 않아 불합격입니다...”

최근 장안의 화제인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유명 셰프로 구성된 '백수저'와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고수 '흑수저'가 진검승부를 벌이는 과정을 담은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흑백요리사를 보면서 취업준비를 했던 지난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흑수저 셰프처럼 취업이라는 전쟁에서 저는 소위 '지방대 졸업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흑백요리사의 '요리계급 전쟁'은 취업시장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흑백요리사에 계급론이 있다면, 취업시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화가 존재합니다. 소위 인서울 대학을 졸업하여 학벌 자체가 스펙인 수도권 인재(백수저)와 지방대학을 졸업한 언더독 비수도권 지역인재(흑수저)가 취업전쟁을 벌입니다. 흑수저 요리사는 닉네임으로만 불리며 파이널에 진출해야만 자신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듯이, 오직 최종합격자만이 수험번호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구직활동을 할 때 지방대 졸업생으로서 취업준비 시 겪는 어려움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업에서 인서울 인재를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기업 준비를 하기 전

사기업에 수차례 지원하였으나, 번번히 서류의 문턱을 넘기가 힘들었고, 운 좋게 서류합격을 하였다 해도 면접에서 학벌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채용 현업에서는 학벌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2019년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3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8.6%가 지원자의 학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대를 졸업한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시험 기회 등 취업 인프라와 인턴, 각종 대외활동 마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이른바 ‘스펙 쌓기’에서조차 지방대학생들은 수도권 학생들보다 훨씬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취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서울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실제로 대학동문들은 출신지역에 남고 싶어도 취업 준비를 위해 수도권으로 많이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직무능력을 증명할 것인가, 스펙을 넘어설 것인가

이러한 환경은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가속화, 거시적으로는 저출산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수년 전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은 채용방식을 스펙에서 벗어나 오직 직무능력 중심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는 블라인드로 변경하고 지방이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안대로 눈을 가리고 오직 맛으로만 평가하는 흑백요리사의 블라인드 심사처럼,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채택한 공공기관들은 지원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무역량을 증명할 것인가, 스펙을 넘어설 것인가.”

취업시장에서는 다양한 이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SKY대를 나온 소위 엘리트, 회계사나 세무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중고신입과 같은 이직러, 인턴경력을 가진 자, 오랜 공시준비로 무스펙인 자까지... 이 가운데 저는 지방대를 졸업한 ‘지역인재’였습니다. 지방대를 졸업한 저에게 블라인드 채용방식과 지역인재채용은 ‘기회’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공기업입니다. 출신지역을 떠나지 않으면서 금융인이 되고 싶었던 제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야말로 꿈의 회사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취업시장에는 두 개의 결과만이 존재합니다. 합격 혹은 불합격. 후수자인 지역인재로 취업전쟁에서 합격이라는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제가 택했던 방법은, 이전 기관이 진행하는 지역인재 양성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년부터 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산 지역 대학생 역량 강화 네트워크(이하 BUF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금융 전문 역량 프로젝트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저는 BUFF 참여를 통해 현직자와의 멘토링을 진행하며 현실적 직무소개가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통해서 공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팀워크 역량과 문제해결력을 키웠습니다. 더 나아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공사 현장실습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습생으로서 직무경험을 쌓고 조직문화를 경험하며 공사 입사에 대한 꿈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BUFF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경험과 배움이 채용과정에서 저의 직무역량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처에서 근무하며, 채무조정과 분할상환 등 재기 지원을 통해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하며 글로만 공부했던 공사의 사업들을 직접 경험하고 업무를 배워가면서, 신입직원으로서 직무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입사 전 꿈꾸었던 금융인의 꿈을 캠퍼스인으로서 실현하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들이 조기에 경영정상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향후 제 목표입니다.

흑백요리사들이 각자 자신의 장르에서 자신 있는 요리를 선보이면서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고 놀라게 하였는데, 특히 '달어냄의 미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정갈하면서 깊은 맛을 낸 오직 한 그릇만으로 상대의 화려하고 푸짐한 메뉴를 압도하는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스펙과 화려한 언변이나 용모보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진정성과 간절함이 더 컸기에 결국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고학력 및 고스펙의 백수저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인재조차 취업문을 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OECD 대기업 비중은 40%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4%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과 출산을 하락,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계속된 구직실패로 돌아온다면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어 다시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그냥 쉬었음’ 청년이 44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느끼게 되는 불안과 우울감에 구직을 미루는 ‘취준준생(취업 준비를 준비하는 학생)’까지 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된 취업 실패에 자신감 상실과 취업의욕 저하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었기에, 청년층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구직 현실을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청년들에게 취업난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취업문을 바늘구멍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하고픈 간절한 마음 하나로 다시 도전하였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도 요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고른 씨앗을 뿌려 혼자 힘으로 수확한 식자재를 삶아진 채 고깃길을 넘어본 이만이 자신의 주방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열어준 호화로운 식당에서 남이 가져온 과일주를 마시는 이를 셰프라고 하지 않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합격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직무역량을 키우고 부족함을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한 자만이 스펙을 넘어 최종합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트로피에는 스펙보다는 청년들이 기울인 노력과 땀방울이 더 깊게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취업준비생을 응원하며...

“수험번호 1000438님,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역량과 인성이 모두 **이븐(even)**하여 합격입니다.”

## 2, 106, 14

한국교통안전공단 | 박○○


 2, 106, 14

저의 공공기관 취업 여정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2년, 106번 지원, 14번 면접 탈락.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겪은 적이 있었나' 싶던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나와 아예 맞지 않는 건 아닌지, 다른 곳을 알아볼지 수도 없이 고민하다 한번만 더, 딱 한번만 더 도전한 끝에 찾아온 공공기관 최종합격이라는 노력의 결실을 담아보려 이 글을 한 자씩 써내려 가봅니다.

 떠나기 싫은 나의 지역, 지역인재가 바람을 이뤄준다

저는 대구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성인이 되어서도 대구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우리 지역과 끈끈한 연을 맺어 왔습니다. 취업을 고민할 시기가 되어 보니, 주변 선배들과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직을 위해 정든 지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본거지인 대구에서 저의 커리어와 삶을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당시 각 공공기관들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일정 비율의 인원을 해당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고, 제겐 시기를 잘 만난 고마운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며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無실무경험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은 NCS기반 채용이라 직무 능력을 위주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인턴경험과 같은 실무경험이 없는 제겐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면접에 가면 다른 지원자들은 대부분 인턴경험이 있었고, 심지어 우수 인턴으로 뽑혔던 지원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했다면 더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을까?’ 물론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도 제가 관심을 갖고 찾아볼수록 많은 기회를 찾아 경험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대외활동이나 인턴경험이 없더라도 저의 지난 경험들을 살펴보면 고민해 본다면 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난 경험들을 찬찬히 고민해 보았고, 비록 실무경험은 없을지라도 교환학생 시절 6개월간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수행한 팀프로젝트 경험, 동아리활동과 대외봉사활동 경험으로 충분히 저의 직무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취업기간 중 느낀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취업정보입니다.

서울은 캠퍼스 리쿠르팅, 취업컨설팅 등 최신 취업정보와 기회가 지방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을 오가는 것은 꽤나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한편으론, 가지 않으려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 보니 지방에도 다양한 취업박람회 등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 내 공공기관 취업박람회에 참석해서 현직자들의 취업스토리와 정보를 얻고, 또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와 현직자 특강을 통해 취업정보와 후기를 듣고 취업준비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 자세 교정 등 여러 방면에서 1대1로 코칭을 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지역인재로 입사한 직원은 업무능력이 부족할까?

‘서울 대학 출신 직원들보다 업무능력이 뒤쳐지지 않을까? 소외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은 모두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행정직으로 입사하였으나,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발령받았습니다. 접해보지 않은 분야였지만 공부하고 익히며, 현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인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담당하며 전국 229개 지자체의 교통문화 수준을 조사하고 국가승인 통계로 공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 2년 차에는 공단발전 및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유공직원으로 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역인재 출신 직원들이 다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입사하여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타 기관과 협업할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 내 유관기관, 지역민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인재는 그 지역에서 오랜 생활과 학업으로 그 지역 이해도가 깊은 직원입니다. 업무 추진 시에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역량을 펼쳐 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능력과 소외감에 대한 걱정과 고민은 한 움큼 털어내고 희망과 도전을 한 움큼 거머쥐길 바랍니다.

## 전하고 싶은 진심

2018년부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많은 지방대 학생들이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희망과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 역시도 원하던 공공기관에 취업하였고, 가족과 저의 생활을 이어온 저의 지역에서 삶을 지속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집중 발전이 더욱 가속화하는 요즘, 더 많은 지방대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커리어와 지역 발전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다만, 지역인재를 만능열쇠로 생각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지역인재 취업준비생들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간절함을 가지고 책상 위에서 공부하고, 거울을 보며 면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을 만능열쇠로만 생각하여 안주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제 자리에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훗날 같은 기관 직원으로, 혹은 타 공공기관 직원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을 만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 꿈을 향한 비행일지

한국가스공사 | 안○○



‘더 크고 무거운 비행기일수록,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하다’

한 항공사의 광고 중 일부인 저 문구는 기나긴 취업 준비 기간 중 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지치고 좌절했던 순간도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은 크고 무거운 나의 꿈을 향해 날아오르기 직전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일정 속도 이상을 넘어서야지만 이륙을 할 수 있습니다. 원대한 꿈을 담고 있는 제 비행기는 지역인재 채용 덕분에 긴 활주로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 날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인재 채용과 함께했던 꿈을 향한 비행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 🔍 계획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꿈]

저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국가,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제공했을 때를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에 공공기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기업의 지향점은 국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행하는 업무가 작게는 지역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큰 책임감과 더불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준비 [비수도권이라는 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거주지인 지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업을 준비하는 데 여러 어려움과 마주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부족입니다. 당시 대학교에서는 대부분 수도권에 취업하기를 원했고, 지방에 있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업에 대한 정보와 인적 인프라가 부족했고 혼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판만 하기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채팅방을 적극 활용한 최신 정보 수집입니다.

다양한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채용공고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기업 취업준비생들과 비대면으로 교류하면서 채용 전형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기업별 필기시험 출제경향, 면접 구조 등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대비할지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대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대학에서는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연계형 공공기관 현장 실습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자소서, 면접을 대비했고 결국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직접 공기업 현직자 분들과 교류하면서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공기업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공기업 입사를 위한 어학성적, 자격증 등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공기업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서류전형은 정량적 스펙을 점수화하거나 적합/부적합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기와 면접을 준비하면서 여러 난기류들과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필기전형의 합격 문턱으로 인한 좌절감 등 심리적 요소입니다.

첫 시험에서 예상보다 상당히 낮은 터무니없는 점수로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점수를 보면서 과연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겼고, 좌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스공사의 채용공고 중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우대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대상자는 전형 단계별 합격자 인원이 목표한 인원 미달되었을 때 추가합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제가 속한 지역이 해당하였고 재도전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좌절 속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잡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추후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재정립하였습니다. 특히 저만의 맞춤형으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무작정 넓은 범위를 공부하기보다, 해당 기업이 입찰한 채용대행사를 분석 후 예상 출제 형식을 파악하여 범위를 좁혔고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필기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면접전형에서 두 번째 난기류와 마주했습니다.

발표 후 면접을 준비할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지만 지방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면접 대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필기 합격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몰려있었지만 열악한 지방은 지원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스터디를 모집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곳에서 면접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제가 있는 지방에서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장 대여와 같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정장을 맞추는 돈과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부족한 시간을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쪼개어 활용하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낭비될 수 있는 이동시간을 활용하고자 집에서 면접 준비와 더불어 예상 질문들을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이동시간에는 녹음된 질문을 듣고 속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진행하거나 스크립트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 🔍 착륙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고 끝까지 달려나간 결과가 가스공사 최종합격이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합격은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발판이지,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지역인재 채용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국민에게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면서 저의 꿈,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 🔍 마무리

‘취업’은 인생에 큰 비중과 영향을 차지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은 외롭고 힘겹고 불안한 순간과 종종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 취업 상담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면서 활용하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불합격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긴 활주로 중 날아오르기 직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학 현장실습에서 시작된 나의 공공기관 목표 달성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



### 🔍 공공기관 입사 첫 준비 그리고 어려움

대학 재학 당시 처음 막연하게 공공기관 행정직 입사의 꿈을 가지며 관심을 가질 때, 어느 공공기관을 목표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이 있었다.

누구나 한번쯤 가졌을 법한 이러한 고민, 나 역시 ‘공기업’이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단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정도만 알고 있었다.

당시에는 대학 소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곳들이지, 지역인재는 무엇인지 자세히 몰랐고 자연스럽게 남들처럼 보편적인 위 기업들을 기준으로 취업 정보를 찾아가며 필요한 자격증, 어학 등 스펙을 똑같이 준비하고 있었다.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토익 점수 등 다른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을 하나씩 취득해 나갈 때쯤 내가 해오고 있는 준비 과정이 어떤 공공기관 취업에 적합할지, 내가 가진 역량이 어떤 공공기관과 맞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마침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 업무 경험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취업 정보 소식을 듣게 되면서 공공기관 현장에서 업무 경험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대학에서의 공공기관 현장실습 업무 경험과 인생 터닝포인트

업무 경험을 쌓기 위해 처음 ‘공공기관 청년인턴’에 지원했을 때, 내가 가진 자격증만으로 인턴을 합격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당연하게도 모두 불합격했다. 블라인드 채용 기반인 자소서 문항들을 작성하다 보니 수많은 경쟁률 속에서 내가 가진 강점이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계속된 불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취준생들이 인턴을 ‘금턴’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실감했고, 내가 과연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진로를 갈팡질팡하고 있는 찰나에 대학에서 우연히 ‘공공기관 현장실습’ 공고를 보게 되었다. 당시 모집 기관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도 있었지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내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곳들이 공공기관들이고 이들이 충청권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것과 이러한 연구기관에도 내가 원하는 행정 직무를 뽑는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현장실습은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공공기관 청년인턴보다 경쟁률이 훨씬 낮았기에 운이 좋게도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현장실습생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해당 기관에서 업무 실습을 수행하면서 업무 경험뿐 아니라 처음 알게 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유형들을 상세히 알 수 있었고, 연구 지원에 관한 행정 업무에 대해 관심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장실습이 끝날 때쯤 정부출연연구기관 입사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면서 나의 도전은 시작되었다.



## 목표 이후 명확한 방향성과 준비과정

내가 입사하고 싶은 공공기관을 연구기관으로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니 단순 자격증 중심의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 연구 행정 지원이라는 초점에 맞춰 관련 대외활동 위주로 준비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 소재인 충청 권역에 있는 연구기관들을 찾아보고 연구기관들에 대한 기사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심을 더욱 키워 갔다.

이러한 준비과정과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대학 졸업 후 한번도 붙은 적이 없었던 공공

기관 청년인턴을 연구기관에서 수월하게 붙을 수 있었고, 인턴 등을 거쳐 행정 직무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나의 역량과 강점을 하나씩 만들어 나갔다.

물론 몇 번의 최종 탈락을 겪기도 했지만 꾸준히 노력을 이어갔고 그 결과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행정직으로 최종 합격하여 대학생 때 목표했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 🔍 정책 제언

지역인재로서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준비 과정을 돌이켰을 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대학과 인근 공공기관이 연계한 '현장 실습 제도 및 기관 방문 운영 확대'라고 생각한다.

총 300여 개의 공공기관들이 있지만 대학생, 더 나아가 수많은 취업준생들에게는 익숙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알리오에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 전까지 어떤 공공기관들이 지역 소재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공공기관들이 어떤 역할과 사업을 수행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을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 인턴은 대학 졸업 이후의 지원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재학생들에게 일찍이 다양한 공공기관의 유형을 접할 기회가 없으며, 이는 결국 대학생 때 청년인턴이 되기 위한 자격증 중심의 스펙 쌓기에만 치중하게 된다. 기관마다 원하는 자격 조건과 인재상이 제각각 다른데도 말이다.

주변 인근 공공기관과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실습 제도 및 기관 방문 운영을 확대한다면, 연구교육/에너지/SOC/금융/문화예술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들을 단기간에 접해볼 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본인에게 맞는 공공기관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준비를 일찍이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인근 공공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기관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기관 또한 인재상을 적극적으로 알려 기관이 원하는 인재들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 지방대학교 캠퍼스에서 전 세계 무대로 뛰어든다

한국국제협력단 | 최○○



### 🔍 시작하며

최근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좁아진 취업문을 두드리다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의 거리, 정보격차로 인해 지방대학교 취업준비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교 캠퍼스를 거닐다 지금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에 입사하게 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그들 역시 저처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고, 공공기관 입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입사 수기를 작성합니다.

### 🔍 운명처럼 이끌었던 지방대학

지난 2014년, 두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어느 대학교로 진학할지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깊게 하였습니다.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우연히 지방대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제개발협력’ 학부 전공을 개설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외경험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수도권 대학교 진학이 가능한 성적이었지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전공에 운명처럼 마음이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가족, 지인이 만류하였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방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대학교 출신으로서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된 이야기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 🔍 지방대학교에서 마주한 불편한 현실

운명처럼 이끌린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설렘도 잠시, 전공 관련 대외활동, 공모전을 탐색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수도권과의 거리격차입니다. 전공 관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대외활동과 공모전은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 기관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최기관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는 평일 시간대, 수도권에서 진행되는데, 지방대학교 학생들은 수업을 결석하고 참석하는 것에 큰 부담감이 따릅니다. 또한, 대학생 신분으로서 부족한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수도권까지의 왕복 교통편 예산이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방대학교 학생들의 대외활동, 공모전 참여 동기부여 저하를 야기하고, 수도권 대학교 학생 대비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현격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관심 있었던 대외활동이 있었음에도 여러 측면에서 부담을 느껴 참여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과의 정보격차입니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대기업, 공공기관은 주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박람회, 설명회 역시 수도권에서 보다 높은 빈도로 열리고 있고, 채용 담당자와의 소통도 용이하여 취업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 기관들은 주변 대학교와 협력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무경험을 쉽게 쌓을 수 있고, 이는 지방대학교 학생과의 취업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외활동을 통해 인연이 닿은 수도권 대학교 출신 지인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선택지 수에서부터 정보격차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Q 하고 싶은 것에는 방법이 보인다

위와 같이 수도권과의 거리, 정보 격차라는 난관들이 있었지만, 한국국제협력단에 반드시 입사하고 싶었기에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탐색을 통해 내린 결론은 대학교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대학교는 지방대학활성화와 취업률 향상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과의 거리격차 완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희망하는 대외활동, 공모전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량 함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된 후 전문성과 전공 관련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대외활동,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수도권 대학생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전국 단위 공모전에서 2회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 취업컨설팅 제공을 통한 수도권과의 정보격차 완화입니다.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은 관심기업 및 기관 정보제공,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준비, 선배와의 멘토링 등을 제공합니다. 이는 수도권까지 이동해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교내에서 간편히 얻게 하여 시간, 비용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도권과의 정보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부생 때 한국국제협력단 채용절차, 취업 관련 정보를 자세히 얻을 수 있었고, 금년도에 입사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본 수기를 읽고 있는 취업준비생들 역시 모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목표 하던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 일단 부딪히고 배워라

최근 대기업, 공공기관에 입사한 신입직원이 갖춘 주요 공통요건에는 타 기업, 타 기관에서 쌓은 실무 경력이 있습니다. 즉 실무에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가 사회적으로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때, 실무경험을 쌓는 것은 수도권 대학교 학생이라고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지방대학교 출신 취업준비생은 어떤 기업, 기관이든 부딪혀보고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여름, 코로나19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장교 전역을 하여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공모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발협력 좋은 일자리’ 공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국제개발협력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NGO에 입사하여 성과관리, 회계정산 등 실무에 필요한 여러 스킬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컨설팅기관으로 이직한 이후에는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프로젝트 관리·운영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고, 해외사업 파견을 통해 사업현장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무경험, 해외사업 현장경험은 한국국제협력단 면접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됐고, 마침내 목표하던 한국국제협력단 입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은 완벽한 조건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기보다 어떠한 조건이든 일단 부딪혀봄으로써 경험을 쌓고,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투입 대비 결과가 아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지역인재 채용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권-지방 간의 거리, 정보 격차의 결과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 지방대학교 취업준비생들에게 분배되는 채용인원 TO의 타당성을 수도권 취업준비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간혹, 수도권 대학교와 지방대학교 합격생들의 점수 차이가 적지 않게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수도권 취업준비생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실무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수요건을 설정한다면, 지역인재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인재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역풍을 이겨내고, 인내와 노력으로 성장하여 재능과 실력을 마음껏 펼치는 순간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응원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rounded rectangular bars of varying lengths.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 V

## 청년인턴 채용



- 1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금의환향을 위한 안내서
- 2 공기업 인턴, 삶의 바로미터가 되다
- 3 공기업 취준생, 공사 대표 정부제도 홍보대사가 되다
- 4 경험하지 않은 것은 생각할 수 없다
- 5 길든 짧은 대박야 안다
- 6 청년인턴 제도의 진정한 의미

##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금의환향을 위한 안내서

한국수력원자력 | 김○○



안녕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서 근무중인 김○○ 주임입니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입사를 준비했고, 감사하게도 청년인턴으로 일하는 도중에 정규직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인턴으로 발만 걸쳤다 합격한 것 아니야?’라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인턴으로 근무하기 위해 1년을 준비했고, 인턴으로서 장장 8개월간 근무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합격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청년인턴으로 근무했던 경험이라고 답합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며 정규직으로 ‘금의환향’하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한 4가지 방법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들어가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직장 경험을 해보고 싶다가나 공백기를 채우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청년인턴을 지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인턴으로 근무하면 취업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기관에 취업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성향인지 정리해 보고 정규직으로 취업하고자 지원할 기관을 먼저 정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취업해야겠다고 결정한 후 인턴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 모집 요강을 보며 지원 기간이 언제쯤일지 예상하고, 합격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정규직과 인턴, 두 가지를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하면 되었기에 정규직 서류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인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근무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업과 일치하는지, 이 기관과 내가 맞는지 등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위한 확신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리 경험해 본 덕분에 취업한 지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근무 환경에 만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본인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정한 후 인턴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첫 번째 방법, 기록하기

경영평가부의 인턴으로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보조, 경영평가 실사 준비, 뉴스 스크랩, 자료 작성 및 검토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랜 취업 준비 기간을 지나 꿈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의미였기에 진심을 다해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주말 출근에 야근, 출장까지 다니면 집에서 공부할 시간이 있냐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하는 일들이 전부 정규직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업무하는 내용을 자기소개서 소재로 활용할 수 있었고, 근무하는 내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필기와 면접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록을 철저히 했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트에 프로세스를 정리해 적어두고 다음에 같은 업무를 할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담당자, 수량, 금액 등을 함께 기록해 누군가 물었을 때 바로 찾아 보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마감일도 함께 적어두어 업무 도중 다른 업무가 들어오면 우선

순위를 파악한 후 급한 업무를 먼저 처리할 수 있게 조율했습니다.

업무가 몰려 바로 정리하지 못했을 때는 퇴근한 뒤 집에서 복기하며 정리했고, 적어둔 업무 기록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써도 넘칠 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두 번째 방법, 흡수하기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어도 정규직의 마음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를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화해서 그와 비슷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업무를 어떻게 보고하시는지, 전화는 어떻게 받으시는지,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모든 분이 동글게 말씀하시고 남을 배려하며 행동하시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부서원과 대화하던 중 우리 회사는 발전 공기업도 맞지만,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정정해 주신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잡은 것이 면접 준비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옆부서에서 해외 출장을 준비하며 환율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필기전형에 출제되는 환율 문제의 실효성을, 영어 원문 뉴스를 스크랩하며 영어 실력의 중요성을, BSC에 기반한 업무 이야기를 하실 때는 경영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며 미뤄두었던 서류 전형과 필기전형 준비를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접에 합격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는 말을 많이 들곤 합니다. 함께 일하며 잘 어울리고, 부서에 녹아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잘 관찰하고 흡수한다면 자연스럽게 면접 준비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세 번째 방법, 의도 파악하기

업무를 하면서 늘 '왜 해야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똑똑하게 일하기 위해 주어진 업무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시하신 것인지 파악한 후 시작했습니다. 보통 업무를 주실 때 설명해 주셨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떤 것에 쓰이는 자료인지 여쭙

보고 결과물을 최적의 상태로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결과물이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작업하는 시간이 배로 들기 때문입니다.

경영평가 실사 준비를 할 때 '왜?'에 대한 고민이 유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장님께서 실사장에 걸 현수막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왜 현수막을 만드는지 생각해 보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보고 우리 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역할이 현수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문장과 그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실사 전날 실사장을 미리 준비하러 갔을 때 제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현수막을 본 놀라움과 뿌듯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좋은 의견이라면 기꺼이 수용해 주시는 수평적인 문화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입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견고히 다져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 🔍 네 번째 방법, 주변 환경 활용하기

저는 인턴을 지원할 때 많은 사업소 중 본사로 지원했습니다. 본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 업무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원 당시 모집하는 인원이 많았고, 주변에 다른 인프라가 없기에 취업 준비를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사 근처에 방을 구해 생활하면서 같은 동네에서 자취하는 인턴들과 스터디를 꾸려 퇴근 후나 주말을 활용해 필기 전형 준비를 하였고, 취업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본사는 다양한 부서에 다양한 직렬의 인턴이 고루 배치되어 있기에, 다른 부서 인턴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며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년인턴을 지원하실 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곳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인턴 생활을 잘 활용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 입사를 바라보며 인턴을 시작했기에 저에게는 8개월이라는 기간이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맞춤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의 경험에 감히 안내서라는 단어를 붙여도 될지 고민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의 경험이 소중한 인턴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공기업 인턴, 삶의 바로미터가 되다

근로복지공단 | 이○○



### 망망대해 속에서 얻은 청년인턴 1승

오랜 기간 전문직 시험 준비로 고시 공부를 했던 저는 취업과 동떨어져 있는 사회 그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취업을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우선 인턴 경험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빠르게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경력과 스펙 때문에 많은 민간기업에 인턴을 지원하였지만, 단 한곳에도 합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공기관은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스펙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보이면 인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번번이 실패하던 도중, 어렵게 한국남동발전(이하, 남동발전)에서 인턴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독서실 인턴? 자기하기 나름

혹자는 공공기관 인턴은 '독서실 인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인턴들의 취업준비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업무와 개인시간을 적절히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동발전 인턴 첫 출근 당시, 대리님께서 업무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은지 여쭙 보셨고 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크게 2가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민원응

대와 사무업무 보조였습니다.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고, 처음에는 민원업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업무를 맡아서 해보니 민원응대 업무가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민원응대라는 것이 아주 쉬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 한마디에 민원인 분께서 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 규정상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 분을 설득해야 하는 일까지 어려운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인 분의 요청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들어드렸을 때, 민원인 분으로부터 받는 감사 인사 한 번이 하루 종일 기운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 🔍 얻는 것이 많았던 6개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인턴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인턴의 회사생활을 도와주고, 인턴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직원들이 받고 있는 복리후생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고,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인턴들을 위해 별도로 제공되는 혜택(면접 공가, 취업 강의제공, 인턴 멘토링 제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대리님들과 친하게 지내며 자기소개서도 첨삭받고, 공기업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시험공부 방법도 배우고, 점심시간에는 따로 시간을 내어 모의 면접도 보면서 공공기관 취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직원분들에게 배우며 직접 했던 실무경험들까지, 부족했던 저의 이력을 하나둘 채워 나갔습니다.

저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도와주신 남동발전과 직원분들 덕분에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을 하던 도중, 첫 번째 직장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입사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직장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 🔍 공기업 인턴, 삶의 바로미터가 되다

간혹 민간기업과 공기업 중 어느 곳이 자신과 맞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취업하여 후회하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해도, 경험을 해보지 않는 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채용의 기회가 열려 있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것에 보람과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 인턴을 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들

인턴을 하면서 만난 동기들은 모두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하여 정기적으로 만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모르고 지냈을 수 있는 다양한 지역, 나이, 성별의 동기들과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인턴을 했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나서도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인턴을 하며 작성한 민원응대 경험은 다양한 민원인분들을 만나며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응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인턴을 하며 배운 기안문 작성 요령, 비즈니스 매너 등은 회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행정직으로 입사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정말 다양한 직무범위에서 내가 어떤 업무랑 잘 맞는지, 그리고 해당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직접 해보지 않고 옆에서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장 취약했던 면접에서 보다 실무자 입장에 다가서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 🔍 마치며

끝으로 저는 31살이 다 되어 가는 30살의 끝자락에 첫 정직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 중에는 40~50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말로 그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보고 구성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

기관은 지원자들이 주변보다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없어도 기회를 줍니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공공기관 취업과 적합한지, 그 방향성만 생각하시고 이외의 요소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취업준비생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공기업 취준생, 공사 대표 정부제도 홍보대사가 되다

한국가스기술공사 | 장○○



### 🔍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 “한치 앞도 모른다”

지방대 공대를 졸업하고, 전기직 공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혼한 대한민국 취업준비생이 한 기업을 대표하는 정부제도 홍보대사가 되어 버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 🔍 자신 있어? “2% 부족해”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 왔을 공기업 입사. 하지만,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는 소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격입니다.

저 또한 지방대 공대를 우수한 학점으로 졸업하고 관련 직무·어학자격증 취득, 헌혈 50회 등 다양한 대·내외 역량을 쌓았지만 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항상 불합격 고배를 마셨습니다.

스스로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정량적 스펙에 있어 모두 상향평준화가 되어 버린 수많은 공기업 취업준비생들 한 가운데서 나만의 차별화된 ‘신(新)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껴버린 것이죠.

신무기란 공기업 조직 분위기와 실제 업무 환경 경험입니다.



## 청년인턴, 의미가 있어? “신의 한 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갖춰야 할 정량적인 스펙은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업의 입장이라면 정량적 스펙이 대동소이한 지원자 중 어떤 부분을 경쟁력 요소로 판단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공기업 조직 분위기와 업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존 구성원들과 스스럼 없이 융화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이 기업에서 찾는 값진 경쟁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대전본부 전력사업처 전력공급부 지중배전파트에 소속되었던 저는 조직도를 통해 구성원을 파악하고, 복합기 사용법 등 서류 보조업무를 숙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입사원이 가져야 할 배우려는 태도와 웃으며 먼저 다가가는 씩씩한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적응 기간 1주일이 지난 뒤, 지상 배전기기 상태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지 긴급 투입이 가능한 지상 변압기·개폐기 현황과 오손 정도를 파악하는 업무였습니다. 단순한 명판 조사와 육안 점검 수준이라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양식을 만들어 완수한 첫 업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론을 접목시킨 초급 실무 역량을 함양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부서 선배들과 간단한 술자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 분위기와 조직 생활 적응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로부터 필기전형 공략법과 면접전형 준비 방법 등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실제 취업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초급 실무 역량은 물론 조직 분위기와 업무 환경을 경험한 저는, 저도 모르게 차별화된 취업준비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 나비효과? “이제는 우리 공사(公社) 정부제도 홍보대사”

짧다면 짧은 2.5개월의 인턴근무 기간 동안 저의 진심과 열정이 전해졌는지, 감사하게도 전국 인턴 수료자 상위 30%에 해당하는 우수인턴사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량적 스펙만을 갖췄던 저는 공공기관의 업무 분위기와 프로세스, 이론을 접목시킨 실무 경험, 현직자들의 가감 없는 조언 등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되어 한국가스기술공사 대졸공채 전기직에 입사(20. 11. 30.)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인턴을 경험하고,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활용하여 입사한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인사부로부터, 대전광역시 주관 청년인턴 X 지역인재 홍보영상 촬영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평택 LNG 생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는 대전 소재인 본사출장으로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우리 공사 인트라넷 게시판과 공사 정식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되었습니다. 또한, TJB 대전방송 기자로부터 관련 영상을 9시 뉴스에 송출해도 되냐는 물음에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좋은 제도를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제도와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몸소 경험한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해당 제도를 널리 알려, 청년층의 고용률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 이제는, 청년인턴을 바라보는 공기업 현직자로서 느낀 점

현재 저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입사한 지 햇수로 5년 차, 대리 진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 중 우리 공사 청년인턴 사원분들을 바라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와 관련, 청년인턴 제도에 대하여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공통역량 향상을 위한 경험 중심의 확실한 프로그램 제공”

청년인턴 제도는 공공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분위기 경험, 보조 행정업무 수행, 조직 구성원 간 소통법 체득, 현직자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내 수많은 공공기관 및 소속 부서마다 상황과 여건이 너무 상이하므로, 일부 청년인턴 사원의 경우 사무실 외곽에 배치되어 조직과 별도의 상호작용 없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회에 발을 딛기 전 공통역량(행정, 소통 등)을 향상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턴 기간 동안 충실히 역량을 쌓고, 평가를 받으며 성과에 따라 포상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현실입니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계약 등과 같은 책임 소재가 있는 주요 업무를 체험형 인턴사원에게 부여하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공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관에 제공하고,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을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경험하지 않은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신○○



🔍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 문제였다! 그것도 선지가 몇 개 없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중 몇 질문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가장 오랜 시간 답을 고민한 질문은 단연 진로입니다. 어떤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여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제 20대를 관통하는 주제였습니다.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나름 열심히 지냈습니다. 사기업, 공기업 가릴 것 없이 대외활동을 했고, 취업한 선배들의 강의를 듣고, 유망하다는 분야를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할 무렵 내린 답은, “마케터가 되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분야 취업준비를 하면서, 제가 확신을 가질 만큼의 열정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케팅이라는 답을 내렸지?”라는 성찰 끝에 깨달은 것은, 처음부터 진로에 대한 질문은 주관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다가 경영학을 배웠고, 어찌다가 마케팅 대외활동을 했고, 그렇게 삶이 흘러가며 생긴 방향 혹은 제약은 진로라는 질문을 선택지가 몇 개 없는 객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은 선지 중 그나마 괜찮았던 게 마케팅이어서 선택한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다다르니 취업에 대한 막연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 🔍 올챙이의 어려움

채용공고를 탐색하고, 지원서를 쓰면서 많은 기업과 직무를 접했지만 그럴수록 막연함은 더 커졌습니다. 외부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었고, 그런 작은 틈을 통해 회사와 직무를 어렵곳이 상상해보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경영학과 경제학 중 어느 전공에 원서를 넣을지 고민하는 고등학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배워본 사람은 두 전공이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걸 알기에, 저 질문이 무지에서 비롯됐음을 압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당연한 걸 모르는 게 올챙이 시절의 어려움입니다. 저 역시 직무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올챙이였고, 불합격의 아픔을 겪는 힘든 취준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 🔍 공공기관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열어준 인턴경험

그러던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접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등 입사지원에 별다른 조건이 없고, 채용규모도 커서 부담을 덜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6개월간의 청년인턴 경험은, 진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1) 공공부문에 동기부여를 느끼다

심사평가원 국제협력부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국제협력부는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를 초청하여 건강보험 심사, 평가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연수를 진행합니다. 저도 국제연수 진행에 참여하여 교보재 ppt를 수정하고, 참여국 9개국이 발표한 '비전염성 질병 현황 및 정책'의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 ppt 수정 업무를 받았을 때, 팀장님께서는 글자 및 사진의 정렬, 글꼴 정도만 확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연수국 전문가의 교재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 더 꼼꼼하게 검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샘솟았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덕분에 모르는 의학전문용어도 하나하나 검색하며 오타, 번역오류 등을 찾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9개국 발표 요약 보고서를 쓸 때도, 낯선 분야의 영어자료를 이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보건의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늦은 시간까지 자료조사

를 하더라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제 역량으로 공익에 기여할 때 느끼는 보람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하는 큰 동기부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공공 분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기관에서 일을 하고자 다짐했습니다.

## (2) 직무와 기업을 이해하다

인턴 근무를 하며 취업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직무와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으로서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가늠하는 것과 내부인으로서 실무, 회의,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기업의 현안을 직접 고민해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취업시장에서 제게 큰 경쟁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여러 세미나, 연구 발표 등을 개최합니다. 인턴도 자유롭게 이런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때, “미래보건의료 시스템을 위한 적정성 평가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의 골자는 “국민, 정부, 의료기관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였습니다. 이 발표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실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 기관이 직면한 상황과 목적, 그리고 제 역할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꼭 업무 관련이 아니어도 선배님들과 이야기하며 여러 고충도 듣고, 주변 맛집도 다녀보고, 체육관 등 회사 시설을 이용해 보면서 내가 어떤 일 혹은 환경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등 생산적인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 근무는 직무역량 및 취업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 본격적인 취업준비

심사평가원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이 기관의 정규직 공채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인턴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제도를 운영해서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은 NCS 필기시험, 면접 관련 강의와 최근 취업한 선배와의 대화 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취준생인 저와 같은 고민을 한 현직 선배들의 조언은 어느 강의보다 와닿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노하우, 필기시험 과목별 공부방법, 면접 당시 분위기 등 취업준비생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직접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취업지원휴가를 쓸 수 있어서 일과 취업준비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휴가를 활용해 박람회에 참가하여 자기소개서 첨삭도 받고, NCS 모의고사도 응시하며 차근차근 공채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취업준비생을 위한 지원이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온갖 정보가 쏟아지지만 막연함은 해소되지 않고, 당장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하며 해매는 느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턴 근무를 마칠 때쯤에는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분명해져 있었습니다.



#### 경험하지 않은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인턴근무를 마치고 6개월 뒤, 감사하게도 정규직 채용에 합격하여 심사평가원에 입사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 취업은 제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또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선지를 고르느라, 제가 고른 선택지에 확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경험을 쌓고 제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분위기는 어떨까’, ‘일이 나랑 잘 안 맞으면 어떡하지’와 같이 취준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고민을 해소하고 당장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막연함과 두려움은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분명한 답을 줍니다. 설령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하더라도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는 것 또한 큰 수확입니다. 그러니 취업준비생이라면 주저 말고 청년인턴에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길든 짧든 대박야 안다

한국철도공사 | 신○○



신○○님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준생이라면 익숙하면서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내려앉는 말입니다.

저는 2020년도 하반기에 한국철도공사 차량직에 지원하여 서류전형과 필기전형까지 통과했지만 면접전형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최종 전형에서 불합격한 경험이 저에게는 1년가량 치열하게 준비했던 것들이 모두 허사가 된 듯한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제가 지원한 시점부터 한국철도공사는 최종전형에 떨어진 사람에 한해 예비번호 대신 체험형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있었습니다. 마침 실무경험도 없을뿐더러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점이었는지 인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온 기회를 잡았고,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3개월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닐 회사, 눈으로 직접 보자

제가 청년인턴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길든 짧든 대박야 안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일할 회사에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가는 온라인상의 후기나 남들의 평으로 모든 것을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처럼, 청년인턴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사 후 인턴들을 신경써주시는 열의 있는 직원분들 덕분에 일주일마다 차륜조, 대차조 등 각기 현장에 있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며 제가 무슨 일을 할 건지, 분위기는 어떤지, 실제 현장근무를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철도차량관리원으로서 현장에서 일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서를 돌아보며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기름때 묻은 공구와 먼지 덮인 설비나 장비, 답답하더라도 안전보호구는 꼭 착용해야 하며, 더울 땀 더운 곳에서, 추울 땀 추운 곳에서 일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고 싶지 않은 일로 보이는 나쁜 점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마냥 단점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베어링 같은 기계요소, 릴레이와 같은 전자부품이 실제 어떻게 작용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작업복을 입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관리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보다 이곳저곳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업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턴으로 입사하기 전에는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으로 인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분들과 대화도 해보고,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면서 생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적성에 맞는 업무인지, 제가 생각했던 일인지 판단하기에 수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자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2021년도 하반기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누구보다 만족도 높게 근무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도 업무 특성이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되기도,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CS나 전공시험을 준비하는 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인턴에 지원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말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 중에서도 단 하나뿐이라도 좋으니, 인턴에 지원해 보는 곳을 추천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

기 위해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모두 통과하는 게 전혀 가볍지 않은 과정입니다. 운 좋게 입사할 수 있으나 적성에 맞지 않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이나 잘 맞는 회사는 본인 스스로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꽤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기부여 해주는 사람들

두 번째로 청년인턴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확인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기 쉬웠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동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해보면 취업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인턴에 지원할 정도의 열의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의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저를 외롭지 않게 하며 지치지 않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만 준비하는 과정을 오랜 시간 겪다 보면 여러 나이대, 여러 직급의 동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잇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저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알고 싶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된 인턴업무였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취업준비생으로서만이 아닌,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3개월간의 인턴 근무가 끝난 후 1년 이내에 저를 포함한 모든 10명의 인턴 동기들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씩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동기들이 저에게 큰 자극을 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저 또한 원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저와 비슷하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청년인턴제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출퇴근이 주는 안정감

세 번째로 청년인턴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대단한 일을 이뤄내는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만 같다는 무거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전형에서 불합격하게 된 부족했던 부분이 이러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스스로 제 장점 또한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인턴 생활을 할 때와 3년 차가 되어 가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입사하여 일을 해보니 제게 주어진 일에만 온전히 집중만 해도 자연스럽게 이뤄낼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혼자서 취업을 준비하다가 슬럼프에 빠진 대학교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의 권유로 인턴을 시작하면서 본래 제가 알던 자신감 있는 친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인턴업무를 하면서도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던 제 모습이 거울처럼 비춰지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은 무엇보다 값진 것이라는 깨달음을 재차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인턴제도는 그러한 안정감 속에서 그저 주어진 일을 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취업 준비 기간에 답답해서 뭐라도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지원했던 인턴경험은 단순히 취업의 문턱을 넘게 도와주는 것뿐이라는 제 생각과 다르게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게 전반적인 도움을 준 경험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얼얼했던 그때의 추위가 기억날 정도로 생생합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하지 못했을 경험입니다. 짧다면 짧은 3개월의 경험이 저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회사생활에 만족감과 애사심을 느끼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뜻깊었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인턴을 통해 '길든 짧든 대보야 안다!'를 그대로 실현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 청년인턴 제도의 진정한 의미

한국가스기술공사 | 전○○



Q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입니다. 혹시 전○○ 지원자 되시나요?'

저는 2024년 7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취업 공부를 하고 있던 중, 추가합격 전화를 받아 한국가스기술공사 사무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30여 개가 넘는 공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20번이 넘는 필기시험 응시, 7번의 면접에서 탈락을 맞본 후였습니다.

저는 입사하기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독하게 노력하고, 수많은 희망과 좌절을 맛보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기다림을 겪었던 저이기에 이번 입사 수기를 통해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이든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Q 청년인턴 제도의 진정한 의미

저는 2년의 공기업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총 3곳의 기관에서 청년인턴 활동을 하였습니다. 취업준비생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서 직무역량을 높이고 이를 면접에서 어필할거야.”

물론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3곳의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활동을 하며 느낀 것은 '이 제도가 단순히 취업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국민의 편익과 국책 사업 실행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각 기관에서 근무를 해보면 기관마다 하는 업무와 겪는 고충이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 많은 공기업 직원들이 오랜 기간 노력해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 또는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서 각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기관의 특징과 업무를 파악하고, 내가 어떤 기관에 맞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30년 동안 근무할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 힘들지 않았던 이유, 청년인턴의 경험

저는 현재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3개월가량 근무하며 야근과 출장, 휴일 근무, 업무에 익숙지 않아 스스로 좌절했던 날 등 나름대로 힘든 3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이나 퇴사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가 청년인턴 경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세 번의 청년인턴 활동으로 기관과 내 자신에 대해 알게 되다

가장 처음 청년인턴을 했던 기관은 한국조폐공사였습니다. 지방대 4학년, 공기업 취업이라는 목표를 정한 뒤 학교 홈페이지에서 취업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 현장실습이라는 제도를 발견하였습니다. 학점을 받으며 청년인턴을 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해당 공고에 지원하였고, 서류와 면접의 과정을 거쳐 10:1의 경쟁률을 뚫고 노사협력부 한자리를 얻어낸 청년인턴이 될 수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저는 멘토 대리님을 도와 산업재해예방의 날 기념 행사 기획 및 진행, 사내 어린이집 관리, 급식소 관리 등 복리후생 업무를 보조하면서 사무직으로서 내부

직원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업무의 일환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무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작업복을 배부하며 큰 박스들을 직접 나르거나, 작업화 샘플을 업체에 돌려드리며 샘플 신발의 밑창을 깨끗이 닦는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일까지 대리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서포트하며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기에 그런 업무조차 힘들다는 생각보다 내부 직원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인턴을 했던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입니다. 코레일은 신입 직원 채용 필기시험 커트라인에 아쉽게 미달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청년인턴 활동 여부를 조사하였고, 저는 그 대상자가 되어 청년인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국민과 마주하는 사무영업부 인턴으로서 직접 무전기로 기관사분들과 소통하며 국민의 안전을 관리하고, 매표, 안내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안내하기도 하고, 화를 내는 고객을 응대하기도 하며 직원들의 뿌듯함과 고충을 저 또한 똑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인턴을 했던 기관은 도로교통공단입니다. 5개월간 안전교육부 청년인턴으로 활동하며 저는 「도로교통법」과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문의 전화가 자주 오기도 했으며, 음주 운전자의 교육 문의 전화 또한 응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0통 가까이 되는 민원 전화를 응대하며 상처받은 순간도, 칭찬받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내부규정과 법령을 익히는 업무에서는 흥미를 느꼈지만, 외부 민원 응대 업무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청년인턴 활동을 통해서 직무역량을 기르기도 했지만, 저에게 맞는 업무와 맞지 않는 업무 등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가스기술공사'라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었고, 현재 제 선택에 후회 없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Q 청년인턴 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저는 청년인턴 근무 종료시점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나 보고서 형식으로 본인에게 잘 맞았던 업무와 힘들었던 업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제언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청년 실업률이 8.7%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2024년 8월 기준 자발적인 백수 상태의 청년이 46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취업하기에만 급급하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용시장 밖으로 이탈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저 또한 전문가의 해석에 동감하며, 청년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업무가 잘 맞는 사람인지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적 차원에서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업무 자가진단 프로그램’ 도입을 강제하여,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에게 강제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찰 시간을 부여한다면 취업 후 업무에 대한 부조화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Q 취업준비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으로서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포기하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대 출신에 대단한 스펙 없는 평범한 청년인 저도, 열심히 하자는 마인드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보다 더 대단하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고졸 채용 | 블라인드 채용 | 장애인 채용  
지역인재 채용 | 청년인턴 채용

인 쇄 2024년 12월 27일

발 행 2024년 12월 30일

발행인 이 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 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인 쇄 경성문화사

ISBN 979-11-6655-305-9